

보험동향 2020년 겨울호

총괄	김세중 (연구위원)
경영환경	박은빈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보험동향	최 원 (수석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 목차

I. 경영환경

1. 경제 / 2
2. 금융 / 11
3. 자금흐름 / 19
4. 규제·제도 / 22

II. 보험동향

1. 성장성 / 25
2. 수익성 / 49
3. 리스크 / 60
4. 시장경쟁 / 63

I. 경영환경

- 2020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로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세계 무역과 산업생산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무역규모 증가율과 산업생산 증가율 또한 전분기의 큰 하락 이후 모두 반등함
- 2020년 3/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이전의 2분기 연속 하락 이후 반등하였으며,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입이 개선되고 있으며, 국내 투자와 수주가 증가함
 -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02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고, 향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로 동결함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단기금리 상승압력은 제한적이나 주요국 국고채 금리 상승,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됨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국고채 수급 경계감 등에 영향을 받아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투자펀드 거래는 모두 축소된 반면, 국내외 주식 거래는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14.4%로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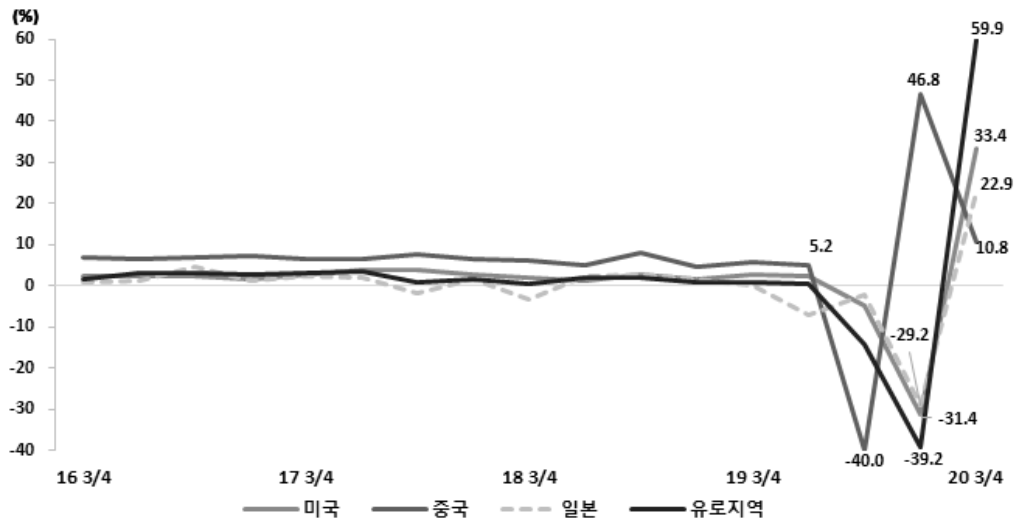
1. 경제

가. 세계경제

■ 2020년 3/4분기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하락에서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임

- 2020년 3/4분기 미국, 일본, 유로지역의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각각 33.4%, 22.9%, 59.9%로, 전분기 대비 각각 64.8%p, 52.1%p, 99.1%p 상승함
- 미국, 일본, 유로지역 모두 전분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3/4분기에 큰 폭의 상승을 보임
- 중국의 3/4분기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은 10.8%로, 전분기에 비해 36.0%p 하락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을 기록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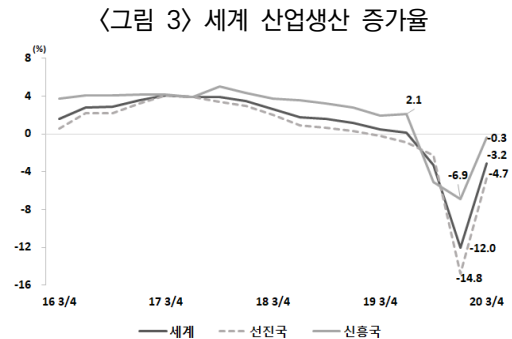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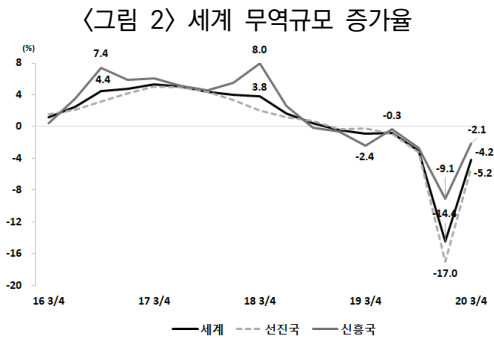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0. 12); 중국 국가통계국(2020. 10); 일본 내각부(2020. 12); Eurostat(2021. 1)

■ 2020년 3/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됨

- 2020년 3/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 2.1% 감소

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됨

- 2020년 3/4분기 선진국과 신흥국의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7%, 0.3%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전분기보다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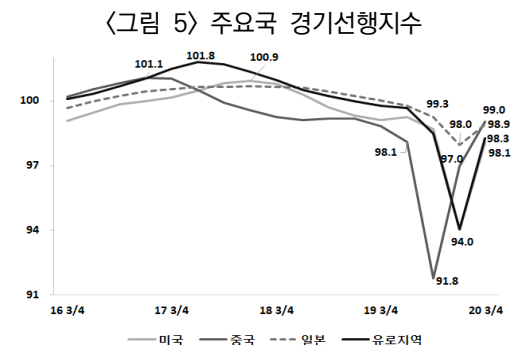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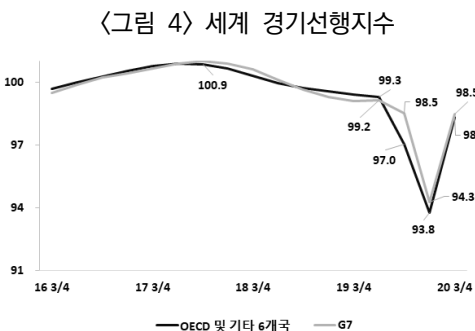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0. 12)

■ 2020년 3/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¹⁾는 98.3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G7의 경기선행지수는 98.5로 전분기보다 4.2 상승하였고, 미국과 유로지역, 일본은 전분기보다 각각 4.1, 4.3, 0.9 상승한 98.1, 98.3, 98.9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2.0 상승한 99.0으로, 2분기 연속 상승함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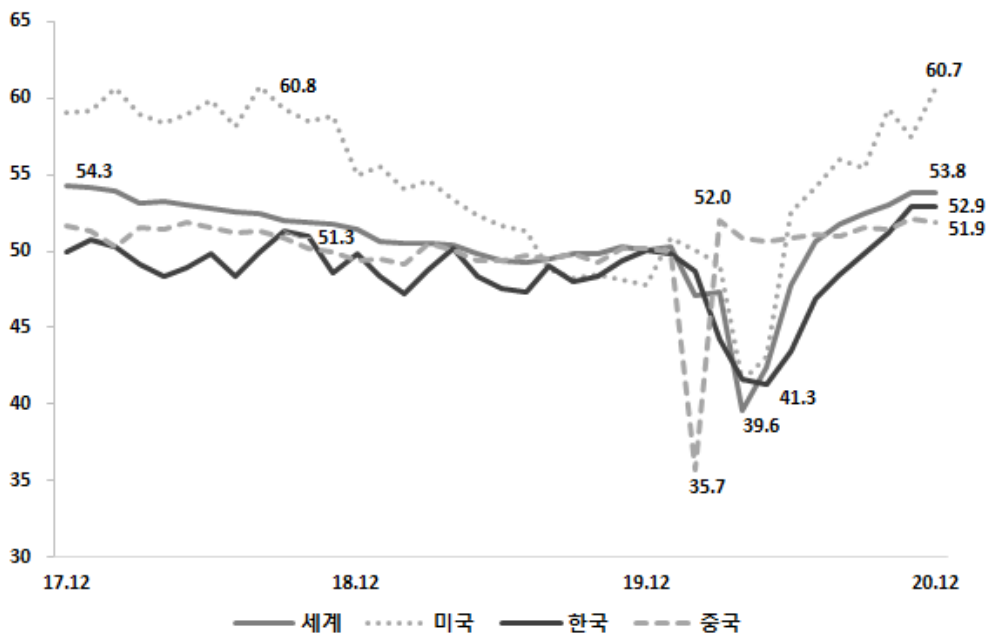
1)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²⁾는 2020년 4월, 11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7개월 연속 반등함

○ 2020년 12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3.8로, 2020년 4월 39.6을 기록한 후 11월까지 상승을 지속한 후 12월에는 전월의 수준을 유지함

○ 2020년 12월 주요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미국 60.7, 중국 51.9, 한국 52.9로, 각각 4월, 2월, 5월 최저치를 기록한 후 모두 반등함

〈그림 6〉 제조업 PMI



주: 전분기 대비, 3개월 이동평균임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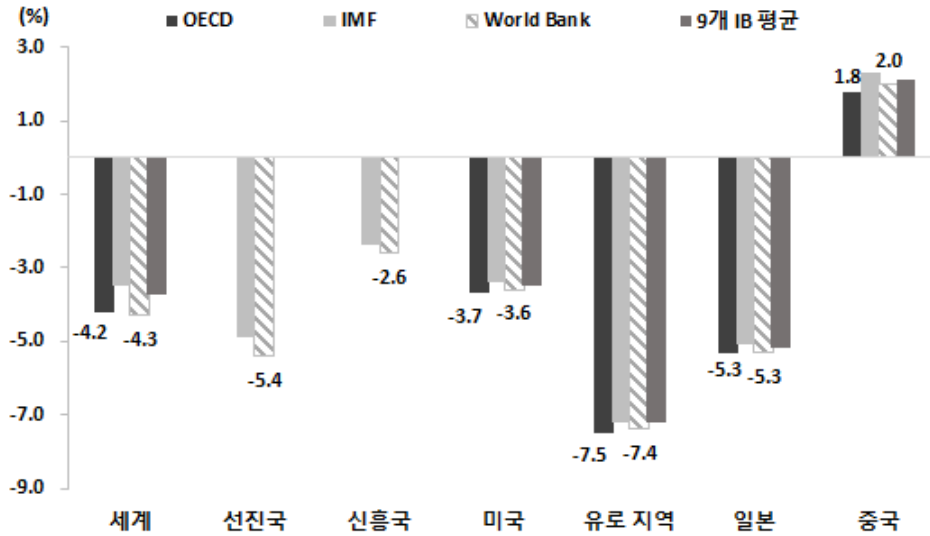
■ 주요 기관들은 2020년 하반기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와 이에 대한 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빠른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경계함

○ OECD는 백신이 공급되기 시작했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확산 방지 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단기간 세계경제 성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하였으며,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5에서 -4.2로 소폭 상향 조정함³⁾

2)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3) OECD(2020. 12), OECD *Economic Outlook*, Vol. 2020, Issue 2

〈그림 7〉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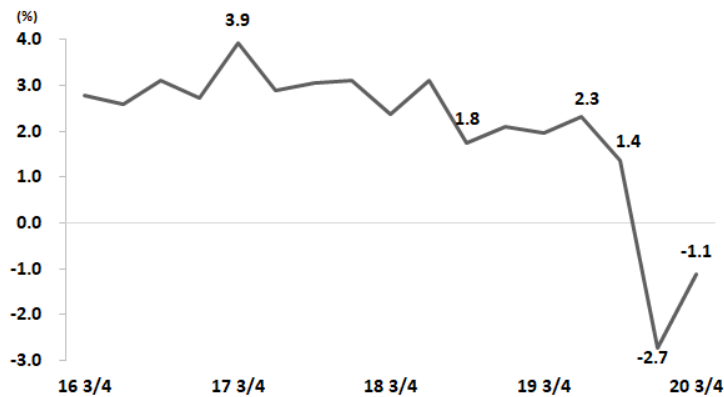


주: 9개 IB: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
 자료: IMF(2021. 1); OECD(2020. 12); World Bank(2021. 1); 9개 IB 평균(2021. 12)

나. 국내경제

■ 2020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수출입이 개선되고 투자와 수주가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1.6%p 상승한 -1.1%를 기록함

〈그림 8〉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월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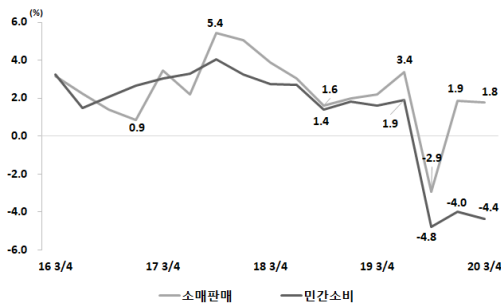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면서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하면서 1/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4%대 감소세를 이어감

○ 2020년 3/4분기 소매판매는 1.8% 증가하면서 2/4분기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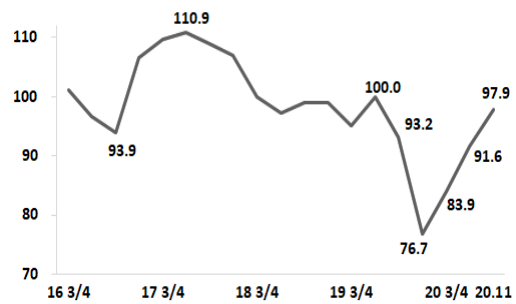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83.9로 전분기 대비 7.2p 상승하였으며, 11월 97.9로 상승세를 지속함

〈그림 9〉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0〉 소비자심리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3/4분기 설비투자과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감소를 지속함

○ 2020년 3/4분기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지식생산물투자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함

○ 반면 2020년 3/4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면서 2/4분기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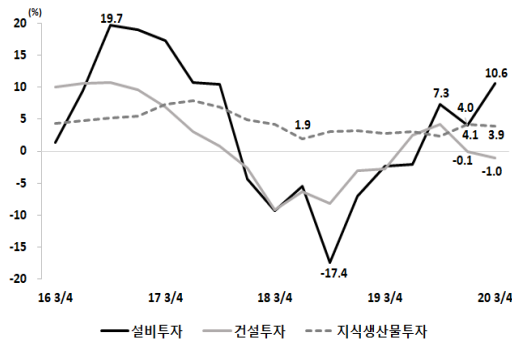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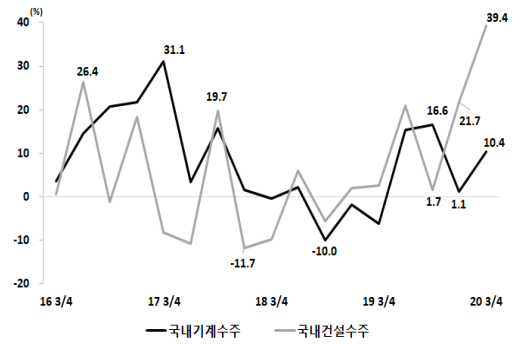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기계수주는 전기업, 공공기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⁵⁾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였고, 건설수주는 9월 중 건축 및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증가하여⁶⁾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함

4) 통계청 보도자료(2020. 8),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9),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5) 통계청 보도자료(2020. 9),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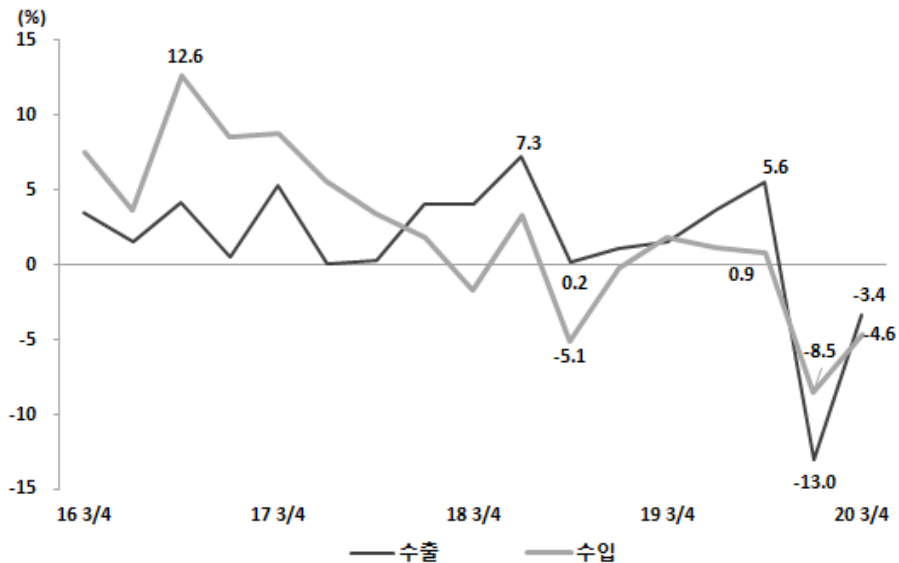
6)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1〉 건설투자,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그림 12〉 기계수주¹⁾, 건설수주²⁾ 증가율

2020년 3/4분기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4.6% 감소하였으나, 2/4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개선됨

〈그림 13〉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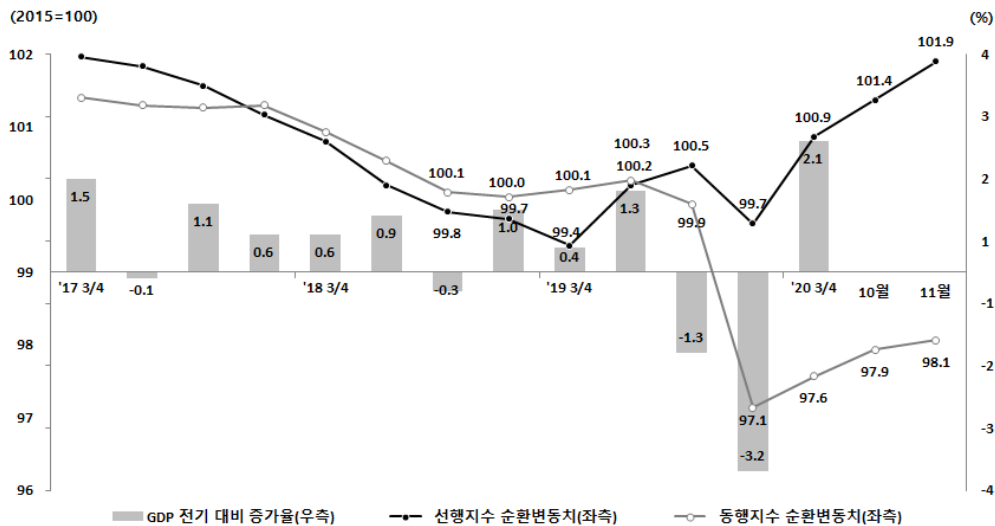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경기 선행지수⁷⁾ 순환변동치, 경기 동행지수⁸⁾ 순환변동치는 모두 상승하였으며, 2020년 10월과 11월에도 각각 상승을 이어감

○ 2020년 3/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0년 7~9월 경제심리지수, 코스피 등이 증가하여⁹⁾ 전분기보다 1.2p 상승한 100.9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2년 8월과 9월 광공업생산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하여¹⁰⁾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97.6을 기록함

○ 2020년 10월과 1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및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를 지속하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4에서 101.9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7.9에서 98.1로 각각 상승함

〈그림 14〉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0년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7)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8)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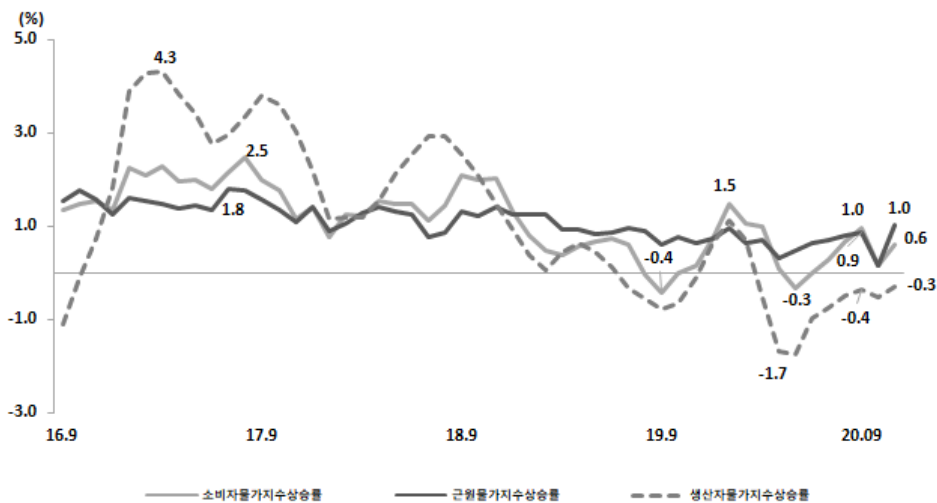
9) 통계청 보도자료(2020. 8), “2020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9),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10) 통계청 보도자료(2020. 9),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0. 10), “2020년 9월 산업활동동향”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9월 1.0%를 기록한 후, 10월과 11월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며 11월 다시 1.0%를 기록함

○ 2020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 통신비 지원 효과로 공공서비스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감소하였다가, 통신비 지원이 종료되면서 11월 다시 상승하여 1.0%를 기록함¹¹⁾

〈그림 15〉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관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 양호한 투자 흐름 지속 등으로 국내경제가 완만히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한국은행과 KDI는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한 후, 2021년 각각 3.0%, 3.1%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¹²⁾은 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1.2%(Citi, Credit Suisse, Goldman Sachs)에서 최고 -0.8%(BoA-ML, Nomura), 평균은 -1.1%로 전망함

11) 기획재정부(2020. 11; 2020.12), 「최근 경제동향」

12)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0년 12월 말 기준임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8	2019	2020(F) ¹⁾		2021(F) ¹⁾	
			한국은행 ²⁾	KDI ³⁾	한국은행 ²⁾	KDI ³⁾
실질 GDP	2.9	2.0	-1.1	-1.1	3.0	3.1
민간소비	3.2	1.7	-4.3	-4.3	3.1	2.4
설비투자	-2.3	-7.5	5.7	6.0	4.3	4.7
건설투자	-4.6	-2.5	-0.7	0.0	0.5	2.0
지식생산물투자	4.4	3.0	3.8	3.7	3.9	4.3
상품수출	3.3	0.5	-1.6	-2.2	5.3	3.7
상품수입	2.0	-0.8	-0.6	-0.5	5.9	4.6
실업률	3.9	3.8	4.0	4.0	3.8	4.1
소비자물가	1.5	0.4	0.5	0.5	1.0	0.7
경상수지	775	600	650	624	600	579
상품수지	1,101	769	740	709	730	669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326	-169	-90	-85	-130	-91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0. 11),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0. 11), 『KDI 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2. 금융

가. 금리

■ 한국은행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0.5%에서 동결하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고자 함¹³⁾

-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상승하였으며,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조정되는 등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음
- 3/4분기 국내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과 투자 지표도 소폭 개선되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3.0%로 상향조정됨
- 단, 민간소비의 경우 대면서비스업의 소비가 여전히 부진하고 생산과 투자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경기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임
- 금융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금융안정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동결하고 자산 매입과 가계·기업 대출 지원 정책의 확대, 지속 등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¹⁴⁾

- 미 연준(Fed)은 11월 기준금리를 0.00~0.25%에서 동결하고 소기업 대출 지원(PPPLF)과 회사채·기업어음(CP) 및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 긴급대출제도를 추가 연장하기로 함
- 유럽 중앙은행(ECB)은 9, 10월 기준금리를 0.00%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프로그램(APP)과 팬데믹 긴급매입프로그램(PEPP) 규모를 확대·지속하기로 결정함
- 영국 중앙은행(BOE)은 9, 11월 기준금리를 0.10%로 동결하고 11월 회의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7,450억 파운드에서 8,950억 파운드로 확대 편성함
- 일본 중앙은행(BOJ)은 9, 10월 단기기준금리를 -0.1%로 동결하고 국채 무제한 매입과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등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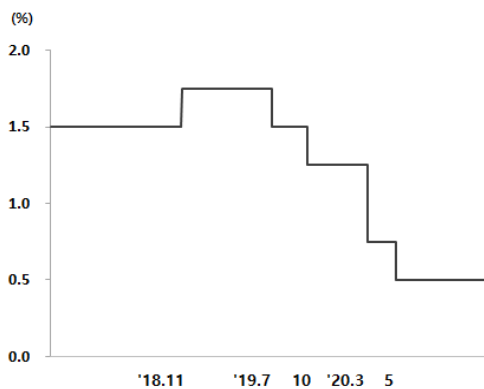
13) 한국은행(2020. 8. 27), 『통화정책방향』

14) 한국은행(2020. 12),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기준금리 동결로 단기금리 상승압력은 제한적이나 주요국 국고채 금리 상승과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장기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어 장단기 금리 격차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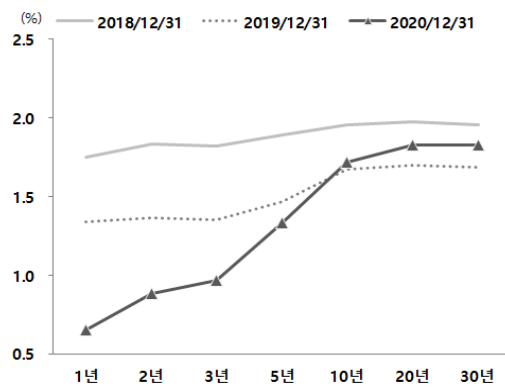
- 미 대선 불확실성 완화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등으로 대외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채권시장과 연동되어 장기물 위주의 금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16〉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17〉 국고채 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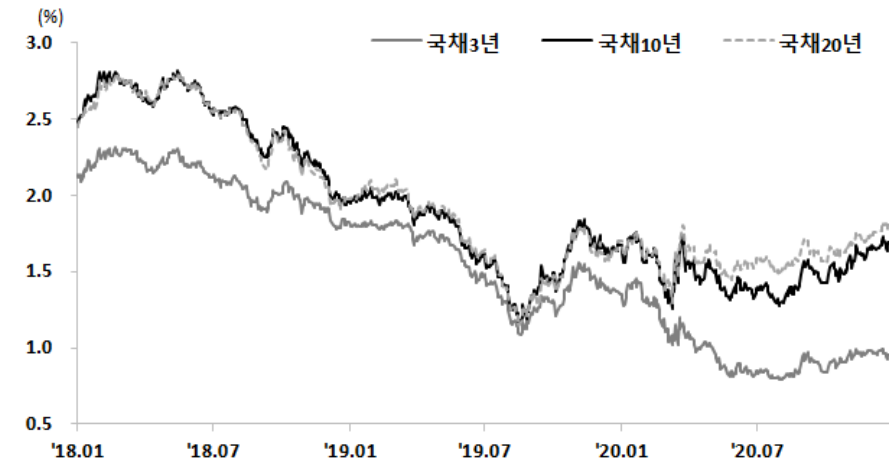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국고채 금리는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미국 경기부양책 합의, 국고채 수급 경계감 등에 영향을 받아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 10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개선,¹⁵⁾ 한 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의 영향으로 4월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함
- 이후 미 대선 불확실성 완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 등으로 상승 압력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 3년물 국고채 금리는 9월 말 0.85%에서 12월 0.99%로,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9월 말 1.43%에서 12월 1.72%로 상승함

15) 국내 경제성장률: 2020년 2/4분기 -3.2% → 3/4분기 2.1%(전분기 대비)
미국 경제성장률: 33.1%(전분기 대비 연율)

〈그림 18〉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채권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확대, 신용스프레드는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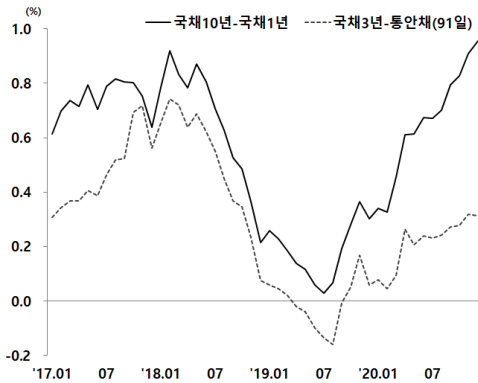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기준금리 동결과 국채발행 물량 증가에 따른 장기물 중심의 금리 상승으로 9월 61bp에서 12월 76bp까지 확대됨
 -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2년물 신설 발행에 따른 단기물 발행 비중 확대로 향후 장단기 스프레스 확대는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¹⁶⁾
- 신용스프레드는 4/4분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회사채 발행 물량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공급 확대, 경기 개선 기대 등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¹⁷⁾되며 축소세를 보임¹⁸⁾

16) 하나금융연구소(2020. 12. 18), 「금리: 외국인 주도의 장세 지속 불가피」,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6호

17) 10월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율은 350%로 전년 동기 대비 29%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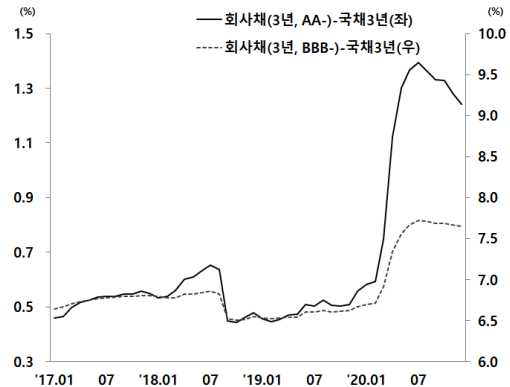
18) 하나금융연구소(2020. 11. 23), 「금리: 코로나 재확산이 일방적 금리 상승을 제한」, 『하나금융포커스』, 제10권, 24호

〈그림 19〉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20〉 신용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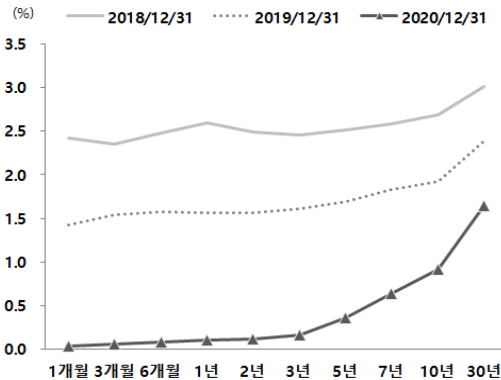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고채 금리는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와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혼재하며 금리 상승세가 제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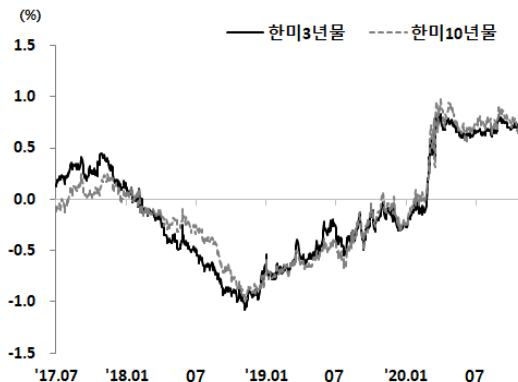
-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완전고용과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상당히 진전될 때까지 자산 매입을 명시화하는 등 자산매입 프로그램 관련 가이드스를 발표함
- 코로나19 백신 조기 상용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0월 0.68%에서 11월 0.98%로 급등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승세가 제한됨
- 12월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와 미 대선 결과 관련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0.9%대로 상승함

〈그림 21〉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자료: Bloomberg

〈그림 22〉 한국과 미국 금리차(3년, 10년)



자료: Bloomberg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1/4분기 금리 전망치를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한국과 미국 모두 상향 조정함

○ 2021년 1/4분기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06%로 지난 10월 전망치 0.86%에 비해 0.20%p 상향 조정함

○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74%로 지난 10월 전망치 1.51%에 비해 상향 조정하였으며, 3년물 금리는 1.08%로 0.19%p 상향 조정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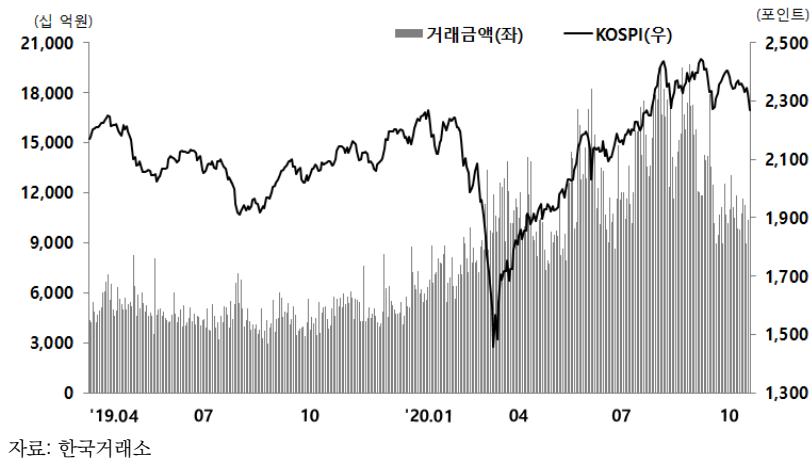
미국 국고채(10년)금리			한국 국고채(10년)금리			한국 국고채(3년)금리		
'21. 1Q	2Q	3Q	'21. 1Q	2Q	3Q	'21. 1Q	2Q	3Q
1.06	1.19	1.26	1.74	1.81	1.86	1.08	1.11	1.17

주: 2021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나. 주가

- 코스피(KOSPI) 지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락을 보이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큰 폭으로 상승함
- 10월 코스피는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하락세를 보임
- 이후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상용화 기대,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완화와 국내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어 큰 폭으로 반등하며 2020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그림 23〉 주가지수 추이



다. 환율

- 원/달러 환율은 양호한 국내 경제지표, 코로나19 백신 개발, 미 대선 이후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9월 이후 빠르게 하락하여 12월 1,080원대로 하락함
- 10월 원/달러 환율은 국내 경제지표 개선, 위안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201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1,120원대까지 하락함
- 이후 미국 대선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달러화 약세가 본격화되었으며, 외국인 주식 순매수,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¹⁹⁾ 하락세를 보이며, 1,080~1,100원대에서 등락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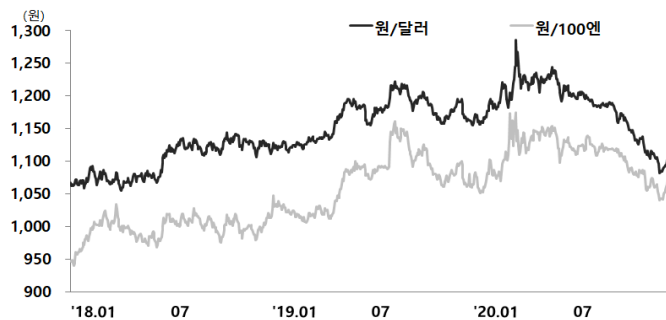
19) KDB 미래전략연구소(2020. 12. 7), 「11월 동향 및 12월 전망」, 『Weekly KDB Report』

- 11월 외국인 순매수는 5.1조 원에 달하고 선박 수주 등 수출 회복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음

■ 원/엔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소식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10월 이후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조치와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기조가 유지됨
- 원화가 초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스탠스 유지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²⁰⁾ 발표로 원/엔 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내 약세를 보임

〈그림 24〉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1년 1/4분기 원/달러와 엔/달러, 달러/유로 환율이 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거나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달러화 유동성 증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 재정부양책 통과 등의 영향을 받아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달러/유로 환율은 브렉시트 합의, 유로존 경기 회복 기대, 바이드노믹스(Bidenomics)²¹⁾ 등의 영향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²²⁾

20) 일본 중앙은행(BOJ)은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하고 자금유통지원 특별 프로그램 만기와 회사채·기업어음(CP) 추가 매입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함

21) 바이든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 최저임금 인상,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이 있음 (한경 경제용어사전)

22) 하나은행(2021. 1), 「유로/원 환율」, 『Hana Market Monthly』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단위: 원, 엔,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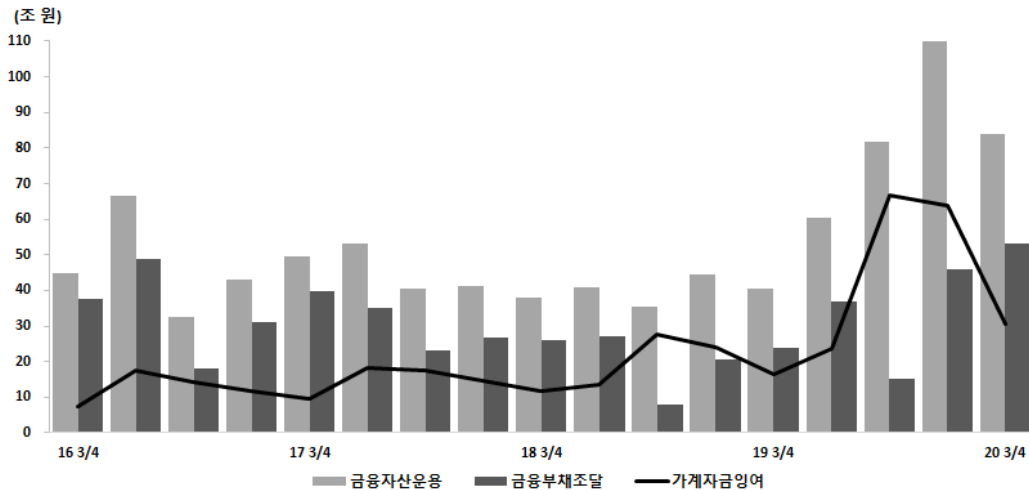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0. 4Q	'21. 1Q	'20. 4Q	'21. 1Q	'20. 4Q	'21. 1Q
Morgan Stanley	1,087	1,090	103	103	1.23	1.20
Mizuho Bank		1,080		101		1.21
SCB Securities		1,080		100		1.23
JPMorgan Chase		1,070		102		1.20
BNP Paribas		-		101		1.22

주: 2021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말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3. 자금흐름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²³⁾의 자금잉여²⁴⁾는 30.6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33.4조 원 감소함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운용은 83.8조 원으로 2009년 통계치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2/4분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부채조달은 53.2조 원으로, 가계부문에서 30.6조 원의 자금잉여가 발생함

〈그림 25〉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3/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거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한 반면, 보험 및 연금, 채권, 국내외 주식, 투자펀드 거래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함
-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중은 2012년 79.7%로 최근 10년 내 최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 1/4분기 13.3%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한 후 2/4분기에 반등하여 15.1%를 기록함

23)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24)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표 4〉 가계금융상품거래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09	86.4	53.8	(37.1)	16.1	9.7	-2.2	-18.7	-0.1	145.0
2010	95.3	65.9	(44.7)	11.1	5.9	-0.2	-30.0	-0.6	147.4
2011	70.9	72.3	(45.6)	11.1	7.9	-0.3	-5.9	2.5	158.5
2012	36.9	99.0	(79.7)	10.5	-6.1	-0.4	-14.2	-1.5	124.2
2013	60.6	91.2	(60.5)	6.1	0.7	-0.3	-7.3	-0.2	150.7
2014	76.0	90.5	(53.2)	4.0	-0.8	0.8	-3.5	3.1	170.0
2015	107.9	89.8	(40.3)	4.7	5.3	1.7	9.5	4.1	223.0
2016	118.3	87.7	(41.0)	-0.9	9.9	0.1	-2.6	1.2	213.7
2017	101.2	83.3	(47.7)	-11.8	0.0	1.1	-3.9	4.7	174.6
2018	74.3	61.4	(40.3)	0.1	17.0	1.8	0.0	-2.1	152.4
2019	130.7	72.0	(39.7)	-17.6	-7.9	2.1	2.0	0.1	181.4
2020 1/4	66.0	10.9	(13.3)	-3.0	9.9	1.9	-6.7	2.8	81.8
2020 2/4	54.2	16.6	(15.1)	11.3	17.3	4.0	4.0	2.7	110.1
2020 3/4	30.4	12.1	(14.4)	9.7	23.3	8.3	-0.9	0.9	8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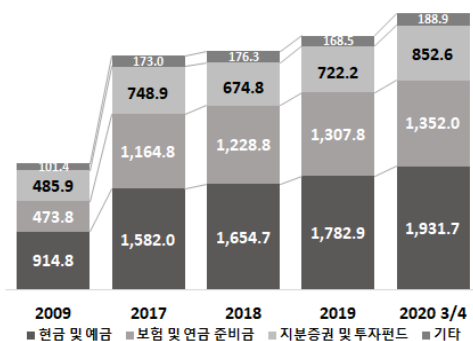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3/4분기 가계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1.3%로 2019년에 비해 1.5%p 하락함

○ 가계금융자산 중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상승하였고, 2020년 3/4분기는 2019년보다 0.1%p 하락하여 44.7%를 기록함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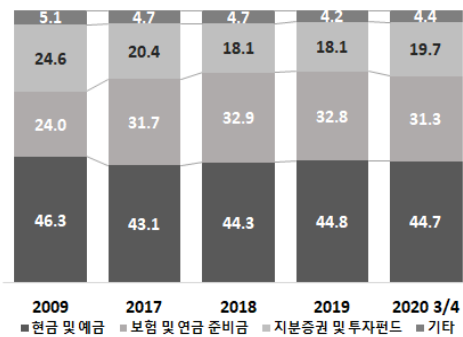
(조 원)



자료: 한국은행

〈그림 27〉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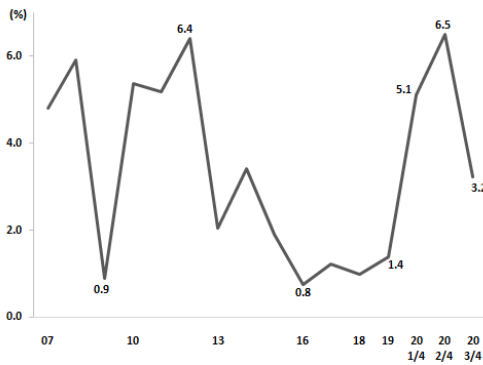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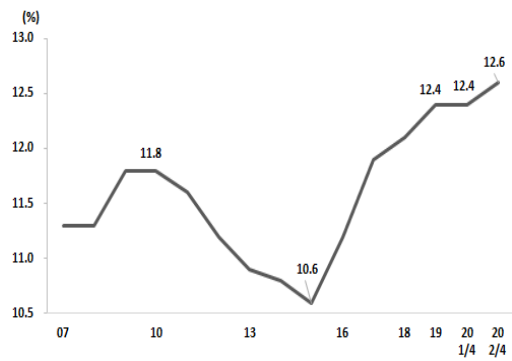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2%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전분기 대비 3.3%p 하락함

○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0년 2/4분기 12.6%를 기록하며 전분기보다 0.2%p 상승함

〈그림 28〉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그림 29〉 DSR



주: 1)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임

2) 2020년 증가율은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통계 개편(고시 제2020-111호)에 따라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농림어가 제외)'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자료: BIS

4. 규제·제도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추진 (2020. 12. 17 금융위원회)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의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확히 할 것임. 또한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할 것임

■ 실손의료보험,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할인·할증 제도 도입(2020. 12. 9 금융위원회)

- 새로 도입되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및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면서 자기부담금수준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의 효과로 보험료 수준은 대폭 인하될 것임. 보험료 상승의 주(主) 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임(제4세대 실손, 2021년 7월 출시 예정)

■ 2023년 IFRS 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2021년 상반기 국회 제출 예정(2020. 11. 30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업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을 운영하여 IFRS 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2021년 상반기에 국회 제출 예정임. IFRS 17 및 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 자본확충계획 마련 및 새로운 회계·계리시스템 운영 준비 상황 등도 점검할 계획임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0. 11. 19 금융위원회)

-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보험(반려견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대폭 완화하였음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2020. 11. 18 금융위원회)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저축성보험 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하였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 수정 공개초안 발표(2020. 11. 2 한국회계기준원)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2020년 6월에 IFRS 17(보험계약, 2023년 시행) 최종안을 확정하여 발표함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내 회계처리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와 보험수익의 발생주의 인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보험계약)의 수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등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2020. 10. 20 금융감독원)

-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피해 시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으로 보상됨을 명확히 하였으며, 2020년 10월 22일부터 음주운전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사고부담금이 각각 1억 1천만 원, 5천 5백만 원으로 상향됨

■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 출시(2020. 10. 15 금융위원회)

- 배달종사자들의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안전운전 의식 고취, 보험 가입률 제고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인 I·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을 도입하였으며,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여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 가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함

Ⅱ. 보험동향

- 보험산업 총자산은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2020년 들어 자산 성장세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함
 - 보험산업 자산 성장에는 보험료 증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확대와 채권 평가이익 확대에 의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증가가 크게 기여함
- 생명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2020년 3/4분기 1.4조 원 흑자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27.4조 원임
 - 보험영업현금흐름 흑자의 주요한 요인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저축보험 실적 호조 등임
-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2020년 3/4분기 1.36조 원 적자를 나타냄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23.1조 원임
 - 원수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직전 분기 둔화된 발생손해액이 다시 증가하면서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적자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모두 보험영업손실이 축소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됨
 - 생명보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저축성보험의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1조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손실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2.4조 원을 나타냄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대형사와 중소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외국사는 축소됨
 -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대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되고 중소형사는 소폭 축소됨

1. 성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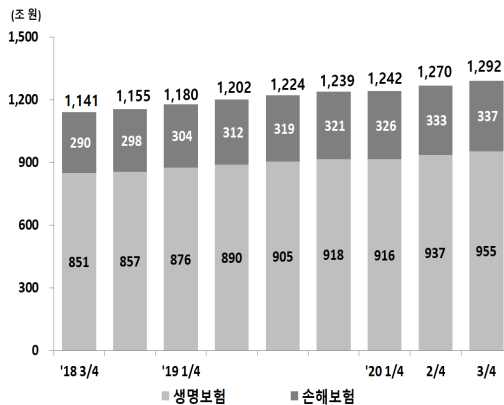
〈보험회사의 성장성〉

-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함
 - 보험산업은 통상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중심으로 성장성을 측정함
 -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산업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지표는 자산성장률로 판단됨
-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며,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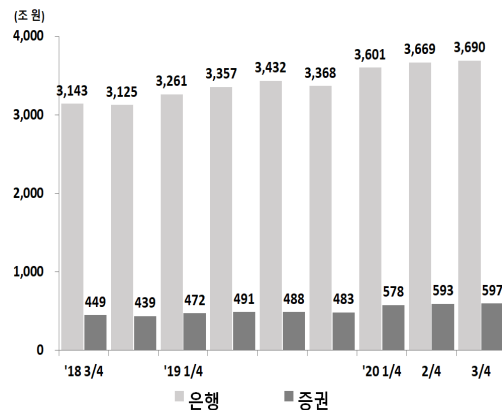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한 1,292조 원임
 - 생명보험산업의 총자산은 955조 원이며,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은 337조 원임
 - 은행산업의 총자산은 3,690조 원이며, 증권산업의 총자산은 597조 원임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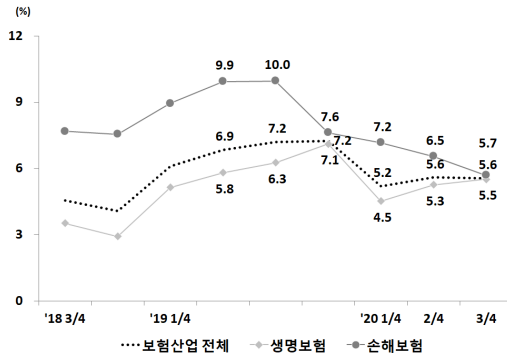
■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2020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였으며, 2020년 자산 성장세가 전년에 비하여 둔화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손해보험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함

- 특히, 손해보험의 총자산 증가율이 2020년 들어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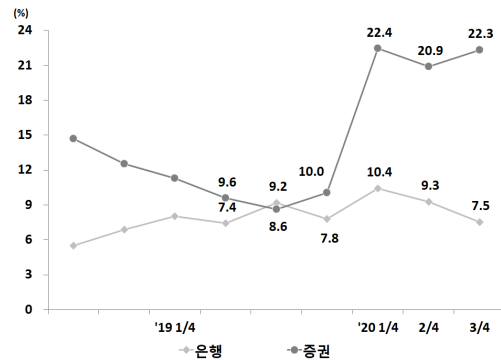
○ 은행의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하였고, 증권은 총자산은 금융시장 안정세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함

〈그림 3〉 보험산업 총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총자산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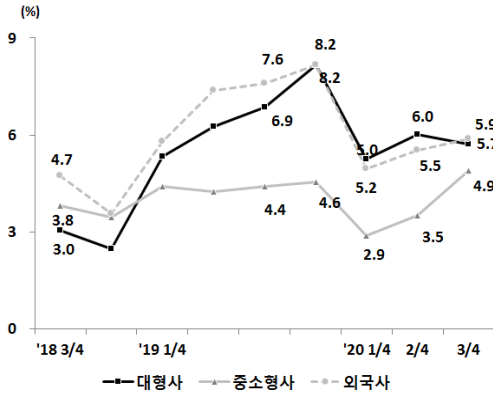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의 경우 중소형사 자산 증가율이, 손해보험의 경우 대형사 자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냄¹⁾²⁾

○ 생명보험의 경우 2020년 3/4분기 대형사와 외국사 총자산 증가율은 각각 5.7%와 5.9%였으며, 중소형사 총자산 증가율은 4.9%임

○ 손해보험의 경우 2020년 3/4분기 외국사 자산성장률은 8.4%, 중소형사는 8.3%, 대형사는 4.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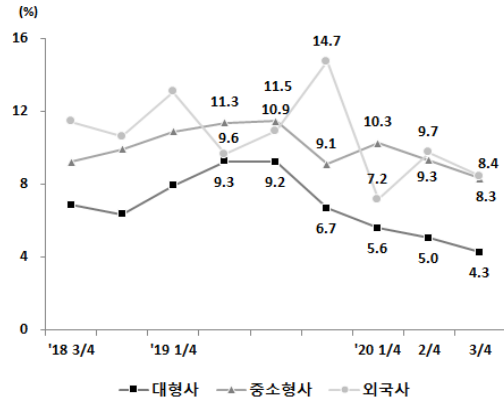
1) 생명보험산업은 총 24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 중소형사 12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2) 손해보험산업은 총 31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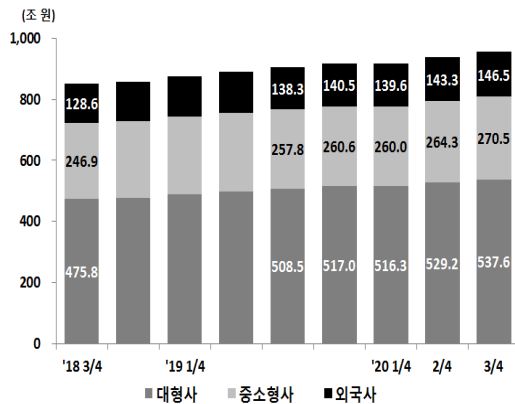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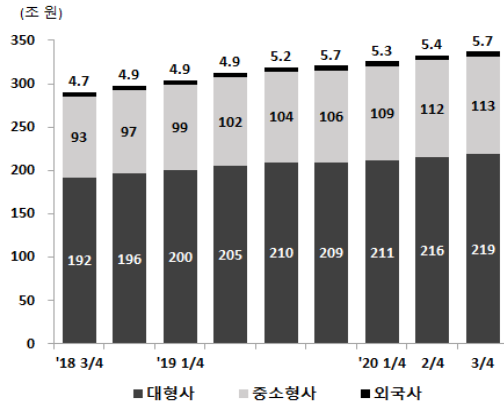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1)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
사이며, 중소형사는 12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1)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
사이며, 중소형사는 10개사, 외국사는 17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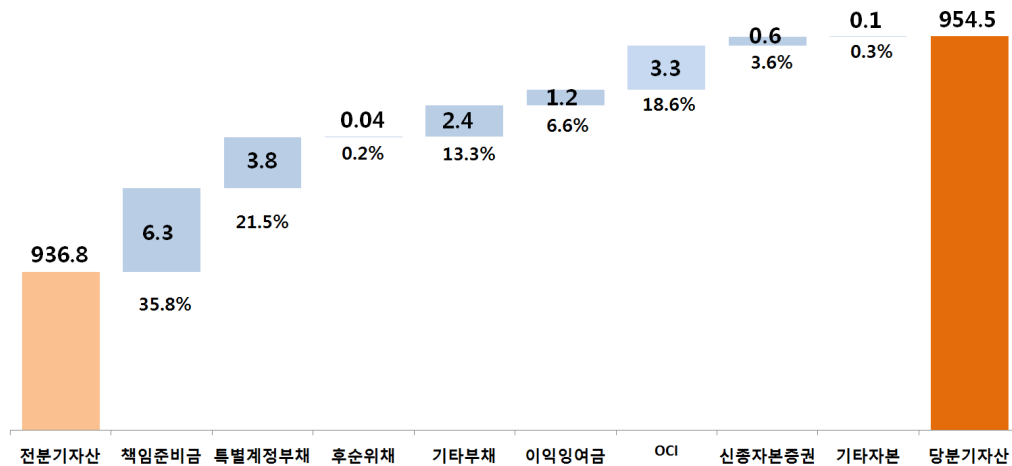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 말 대비 17.7조 원 증가하였고,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순으로 자산 증가에 기여함

○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총자산 증가에 6.3조 원(35.8%) 기여하였으며, 특별계정부채는 자산 성장에 3.8조 원(21.5%) 기여함

-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은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확대로 자산 성장에 3.3조 원(18.6%) 기여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와 부리이자(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책임준비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보험금(발생손해액), 사업비 및 '수입보험료 속에 포함된 위험률차익과 사업비차익'은 책임준비금을 감소시키는 요인임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음
 -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 이므로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text{책임준비금전입액} + \text{기타}$$

$$= [\text{보험영업이익}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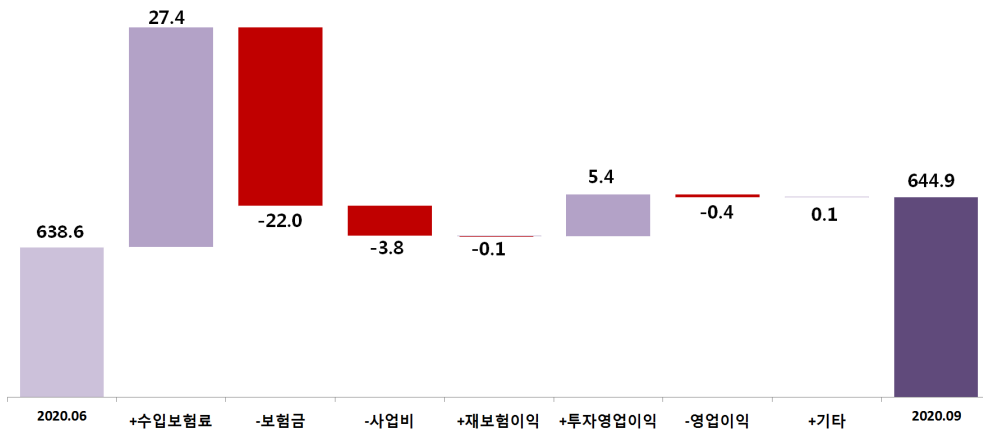
$$= [(\text{수입보험료} - \text{보험금} - \text{사업비}) + (\text{재보험수익} - \text{재보험비용}) + \text{투자영업이익} - \text{영업이익}] + \text{기타}$$
 ○ 공시된 회계상의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은 대략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으로 이해할 수 있음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2020년 3/4분기 전분기 대비 6.3조 원 증가하였고,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사업비³⁾를 차감한 금액 1.6조 원과 투자영업이익 5.4조 원이 책임준비금 증가에 기여함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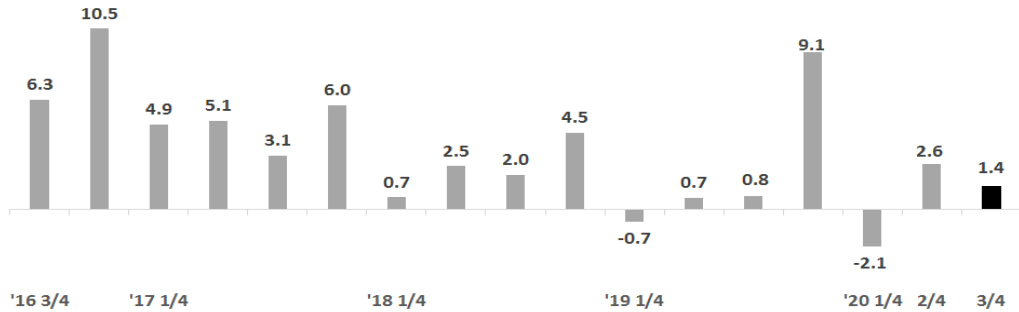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증가 등으로 인해 2020년 3/4분기 1.4조 원 흑자를 나타냄

〈그림 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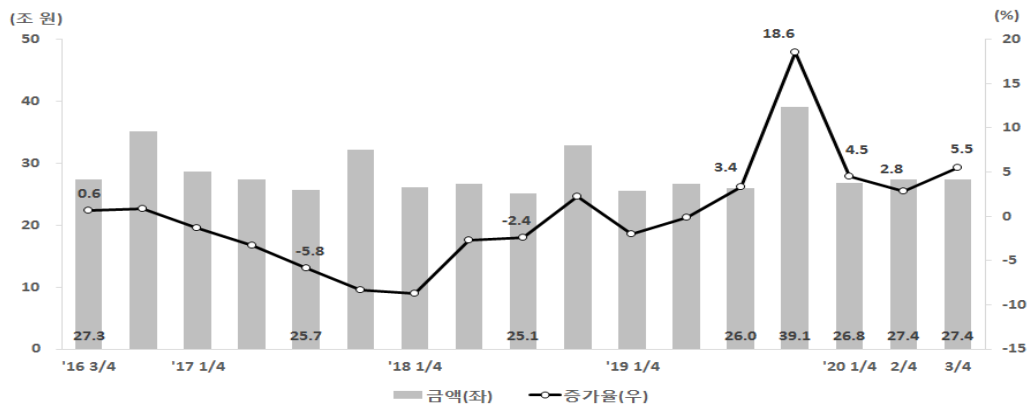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실제 사업비(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27.4조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일시납 보험료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됨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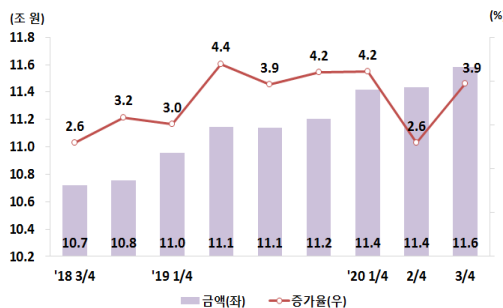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종목별로 보면, 2020년 3/4분기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증가한 반면,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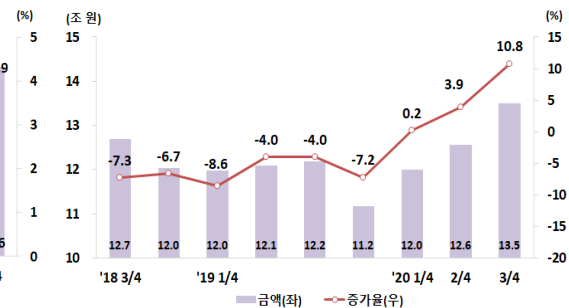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1.6조 원이었으며, 4월 예정이율 인하 후 감소하였던 신규판매가 회복세를 보임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예·적금 금리 하락에 따른 저축보험의 금리 경쟁력 확대 등으로 일시납 중심의 신규판매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13.5조 원을 나타냄
 - 변액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는 금융시장 안정세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계속보험료는 감소세를 지속함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한 2.1조 원이며,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한 0.17조 원임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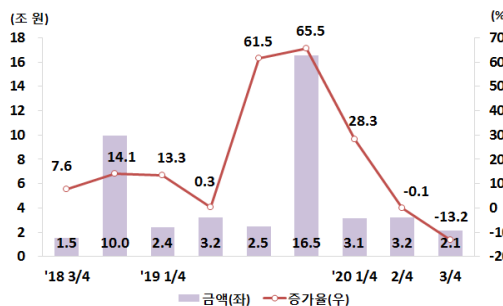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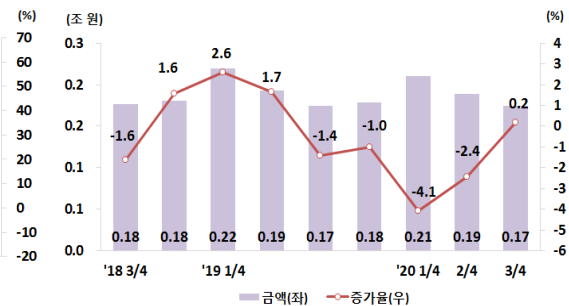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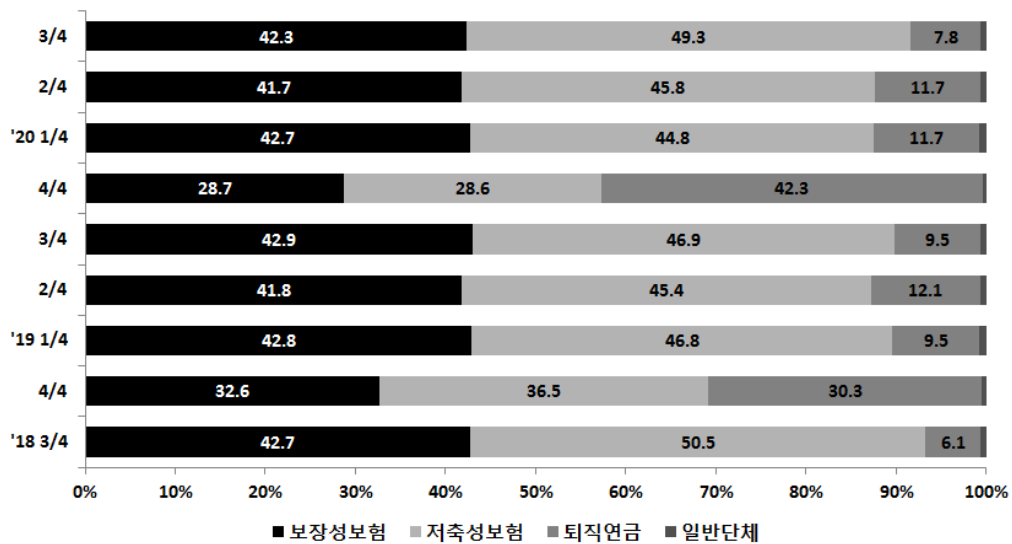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에서 저축성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일시납 저축보험 신규가입 확대 등으로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2.4%p 확대된 49.3%를 나타냄
- 저축성보험 비중 확대의 영향으로 생명보험에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6%p 축소된 42.3%를 나타냄
- 퇴직연금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7%p 축소된 7.8%를 기록함

〈그림 17〉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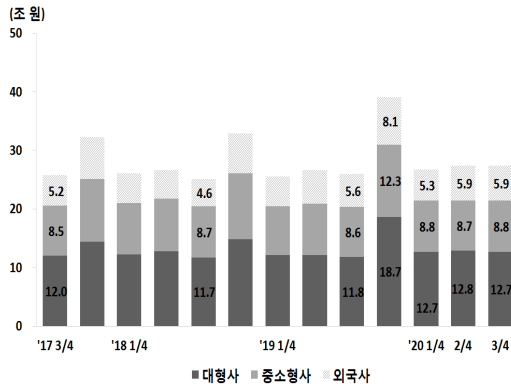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0년 3/4분기 대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6%, 6.0% 증가하였으나,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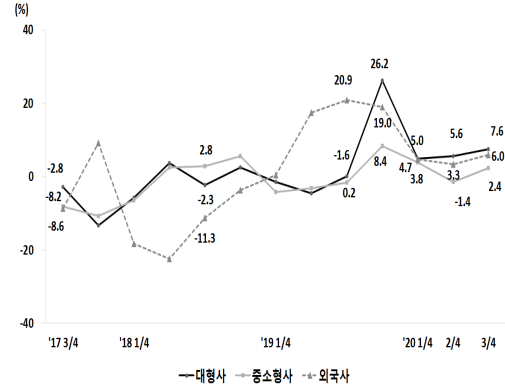
- 이번 분기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세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전분기의 감소세(-1.4%)에서 증가세(2.4%)로 전환됨

〈그림 1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9〉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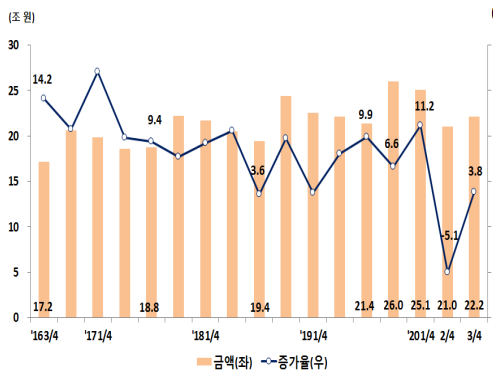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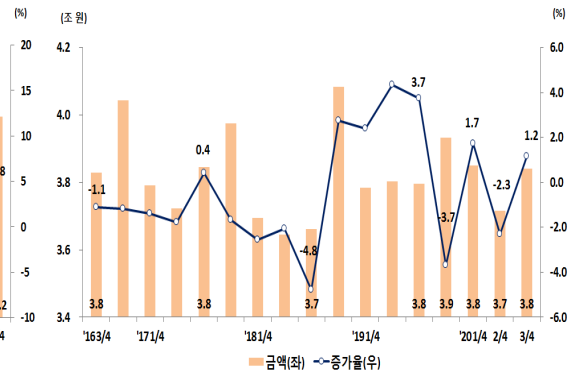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의 보험금과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1.2% 증가함
- 전분기 감소하였던 보험금이 이번 분기에는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활동량 감소 등으로 증가폭은 이전 수준보다 작았음

〈그림 20〉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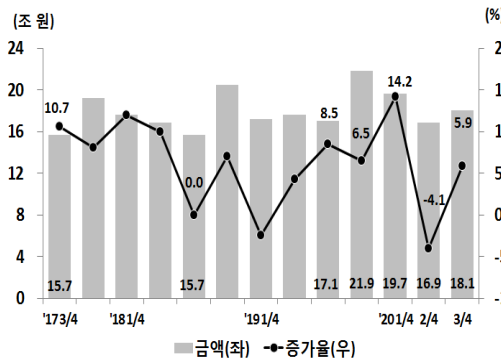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의 종목별 보험금의 경우 환급금과 사망 및 상해 보험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반면, 만기 및 퇴직 보험금과 배당금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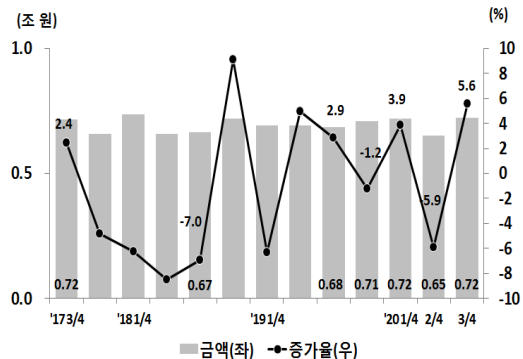
○ 전분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던 환급금과 사망 및 상해 보험금은 이번 분기에 증가 전환함

〈그림 22〉 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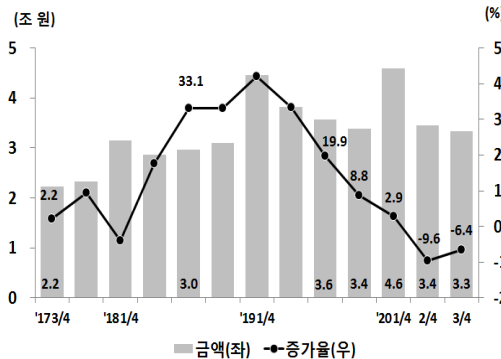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3〉 사망 및 상해 보험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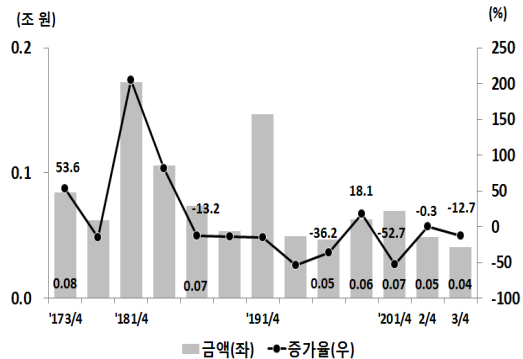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4〉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5〉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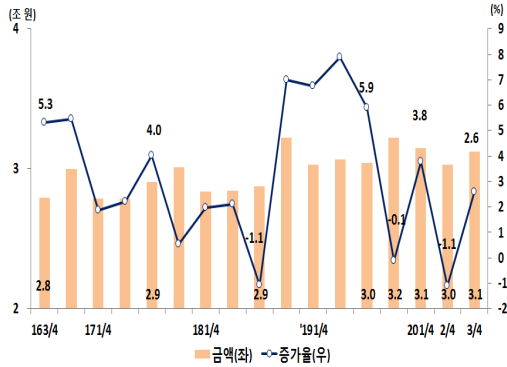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저축성 보험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보장성보험 사업비의 경우 2/4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의 본격화 등으로 감소(-1.1%) 하였으나 3/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3.1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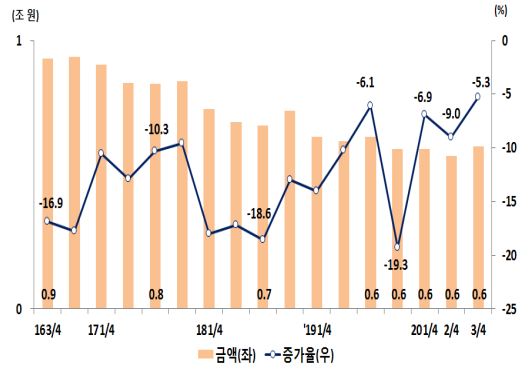
○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2020년 3/4분기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0.6조 원을 나타냄

〈그림 26〉 보장성보험 사업비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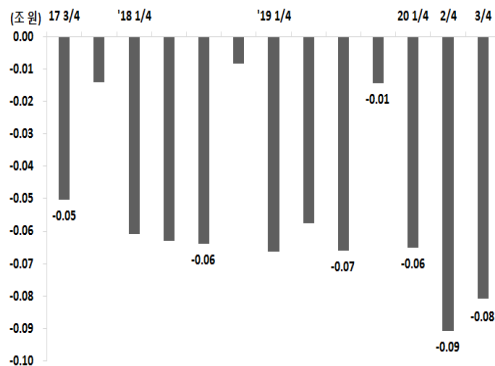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재보험 이익은 0.08조 원 적자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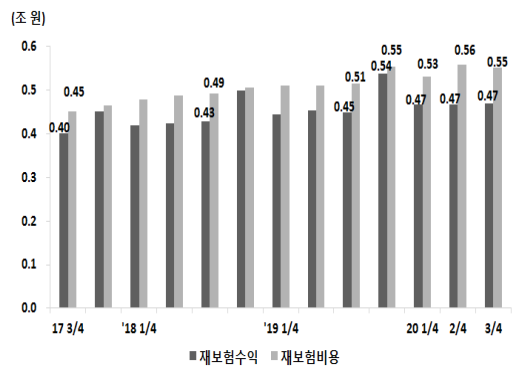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재보험수익과 재보험비용은 각각 0.47조 원과 0.55조 원임

〈그림 28〉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생명보험 재보험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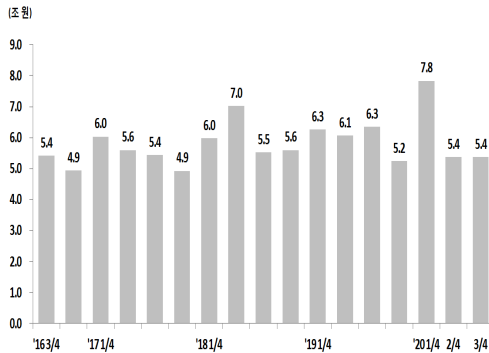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의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투자영업이익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감소한 5.4조 원 흑자를 기록함
- 영업이익은 저축성보험 영업실적 호조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조 원 확대된 0.4조 원 흑자를 나타냄

〈그림 30〉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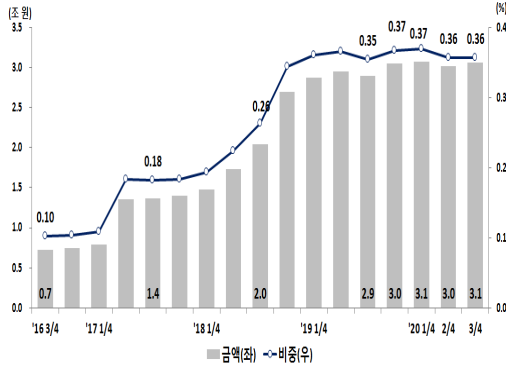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는 3.1조 원으로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6%임

■ 생명보험 기타부채⁴⁾는 2018년 3/4분기 26.8조 원에서 2020년 3/4분기 42.4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45%에서 4.94%로 확대됨

- 생명보험 기타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계약자지분조정과 이연법인세부채 확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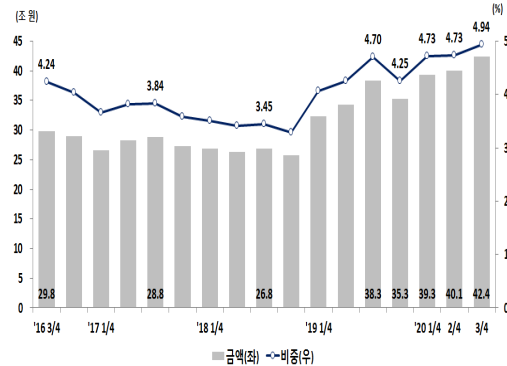
4)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그림 32〉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기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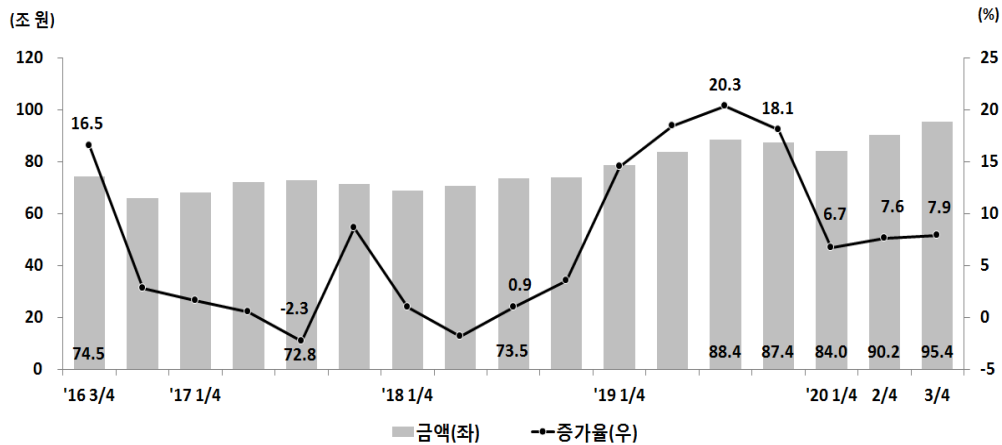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생명보험 자본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총자본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95.4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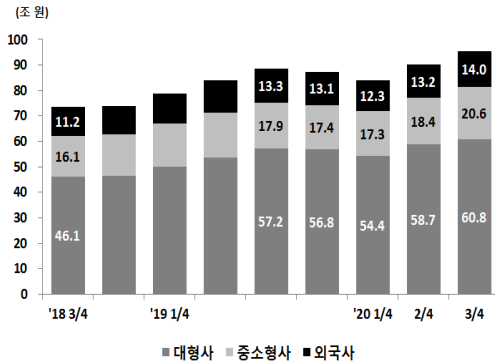
○ 그룹별로 보면, 중소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총자본 증가율이 14.5%로 가장 높았으며, 대형사와 외국사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5.8% 증가함

〈그림 34〉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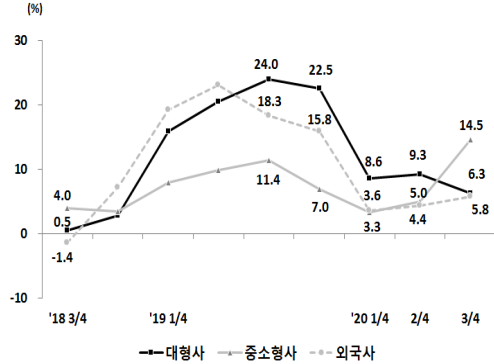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6〉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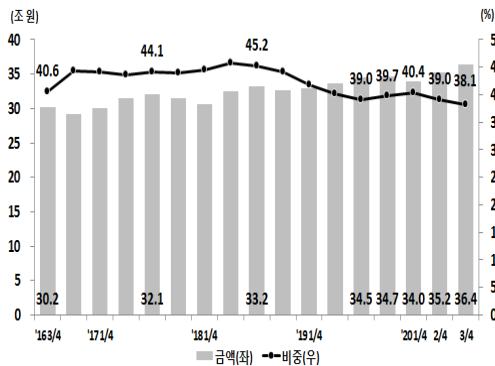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과 신종자본증권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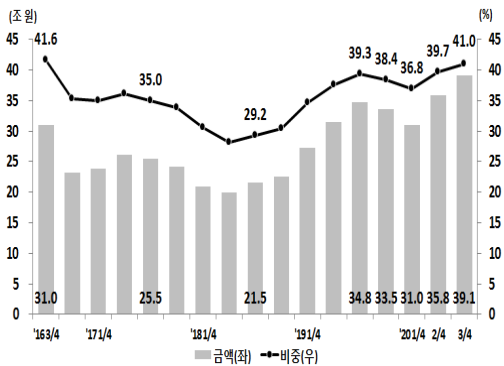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중은 채권 평가이익 확대로 전분기 대비 1.3%p 상승한 41.0%를, 신종자본증권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4.4%를 나타냄
- 이익잉여금과 기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분기 대비 모두 0.9%p 축소된 38.1%, 16.4%를 기록함

〈그림 37〉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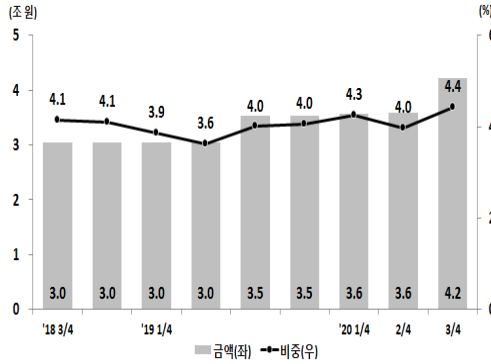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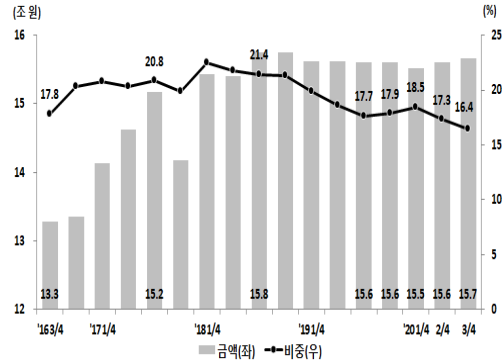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9〉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0〉 기타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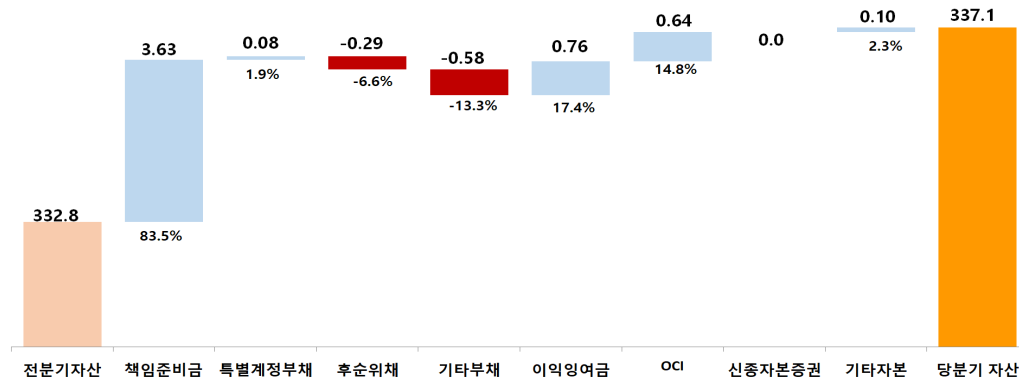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4.3조 원 증가하였으며, 책임준비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증가가 자산 성장에 크게 기여함
- 보험료 수입 확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가 총자산 성장에 가장 크게(83.5%) 기여함
-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증가도 총자산 성장에 각각 17.4%, 14.8% 기여함

〈그림 41〉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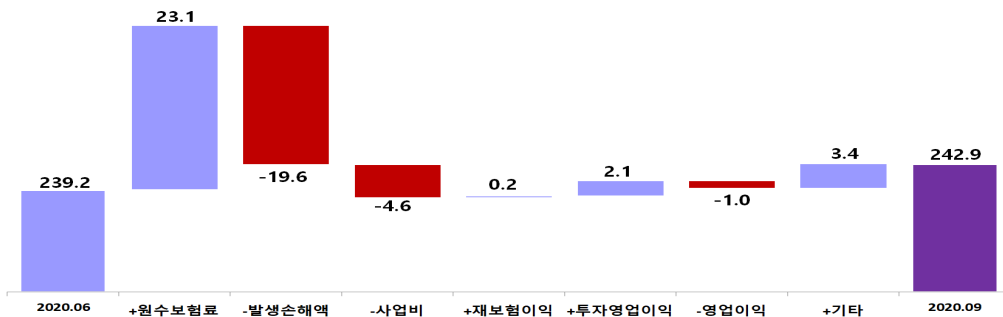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3.7조 원 증가함

-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⁵⁾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 1.1조 원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투자영업이익은 2.1조 원 증가하여 책임준비금 확대에 기여함

〈그림 42〉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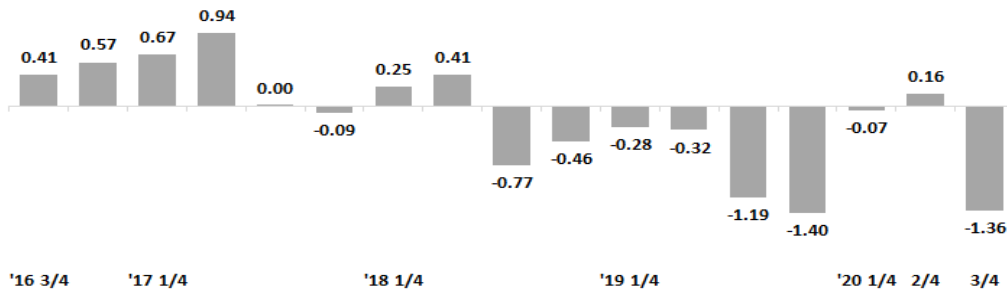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2020년 2/4분기 흑자(+0.16조 원)를 기록했으나 3/4분기에는 다시 적자 전환됨

- 이는 2/4분기 코로나19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발생손해액이 3/4분기에는 높아졌기 때문임

〈그림 43〉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를 차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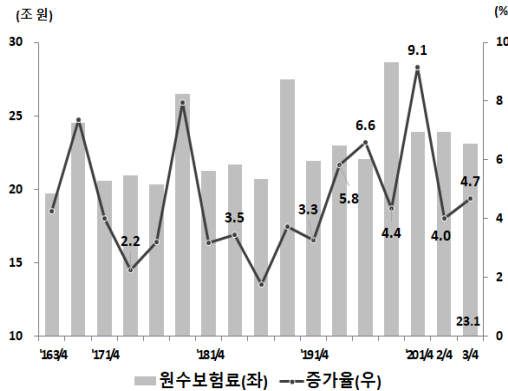
5)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23.1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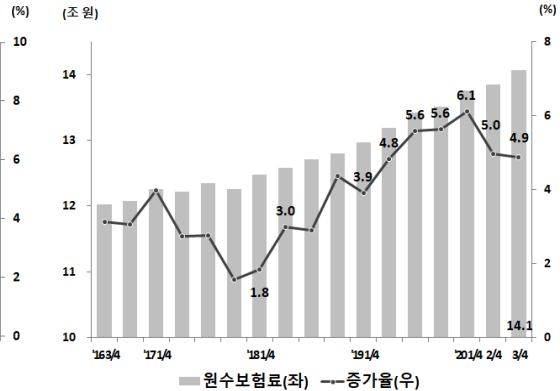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 질병 및 상해보험과 운전자보험⁶⁾의 증가세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4.1조 원을 기록하였으나, 증가율은 2분기 연속 둔화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⁷⁾ 효과 등이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5.0조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보증보험, 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2.4조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26.5% 감소한 0.7조 원, 0.9조 원을 나타냄

〈그림 4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5〉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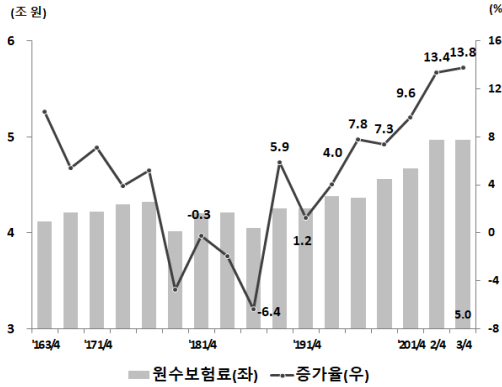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6) 2020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처벌이 강화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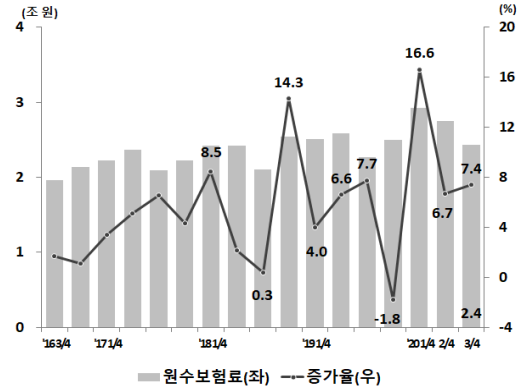
7) 2020년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짐

〈그림 46〉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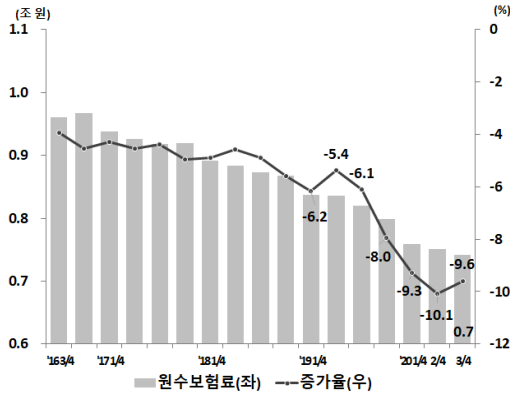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7〉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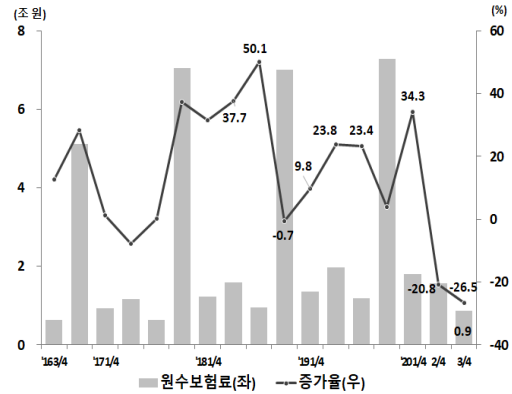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8〉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9〉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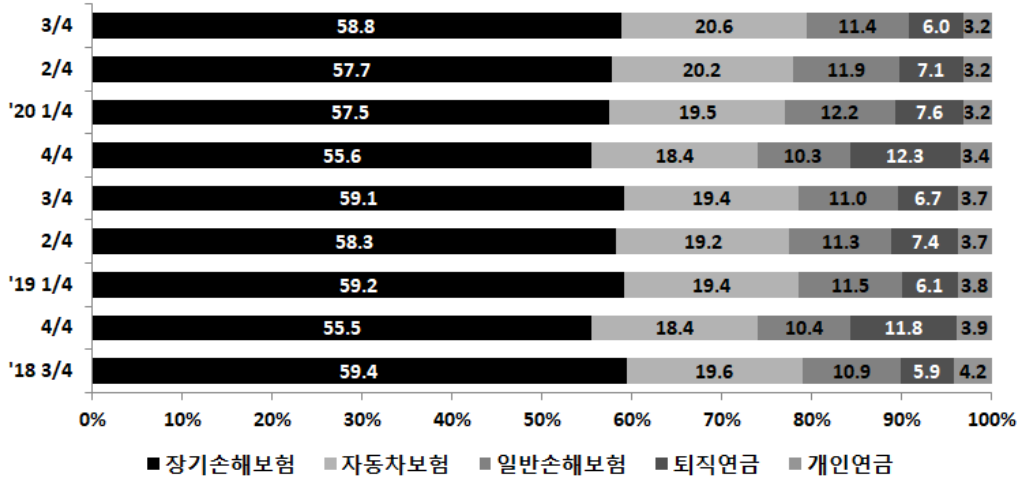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각각 20.6%, 11.4%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각각 1.2%p, 0.4%p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3%p 축소된 58.8%를 나타냄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p, 0.5%p 축소된 6.0%, 3.2%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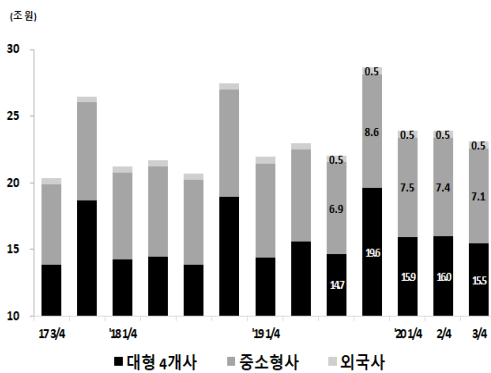
〈그림 50〉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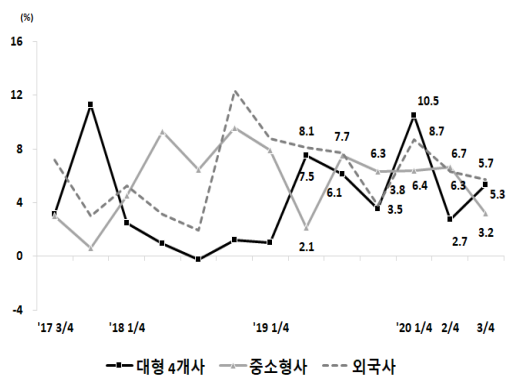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0년 3/4분기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5.7%로 가장 높았음
-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5.3%, 3.2%임

〈그림 5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2〉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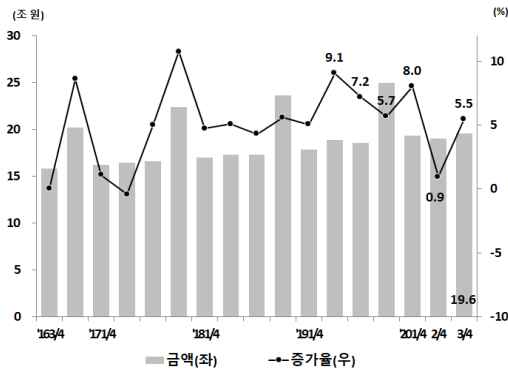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5%, 0.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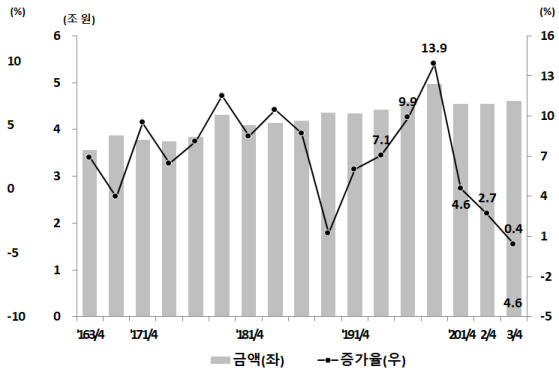
- 발생손해액의 경우 2/4분기 코로나19 영향 본격화 등으로 0.9% 증가에 그쳤으나 3/4분기에는 5.5% 증가함
- 사업비의 경우 전년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증가세가 둔화됨
 - 장기손해보험의 판매경쟁 소폭 완화와 비대면 채널 판매 확대 등이 주요 원인임

〈그림 53〉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4〉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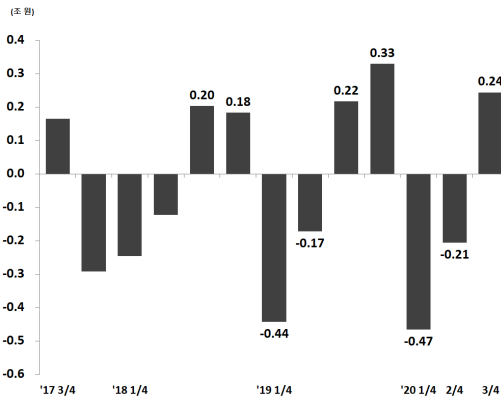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재보험 이익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24조 원 흑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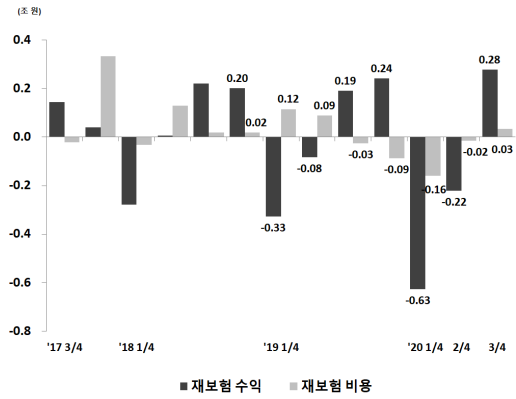
- 재보험 수익은 0.28조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재보험 비용도 0.0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그림 55〉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6〉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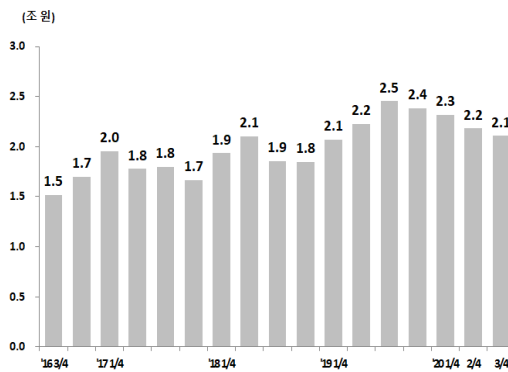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은 2.1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1.0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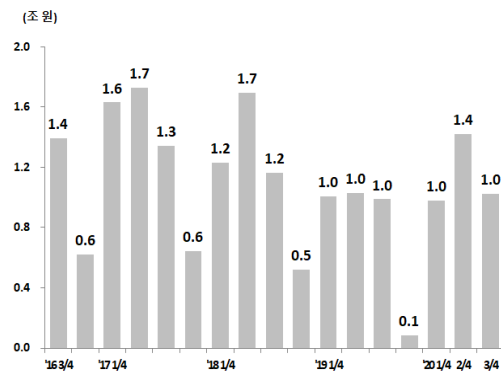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57억 원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6억 원 증가함

〈그림 57〉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8〉 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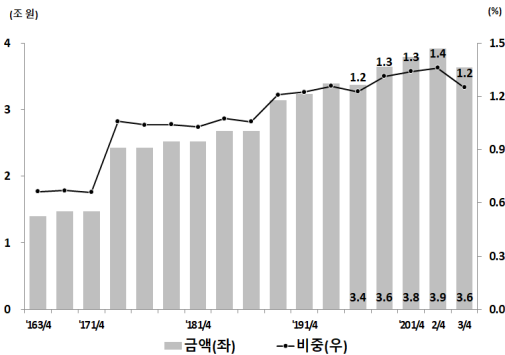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의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기타부채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

○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증가한 3.6조 원으로,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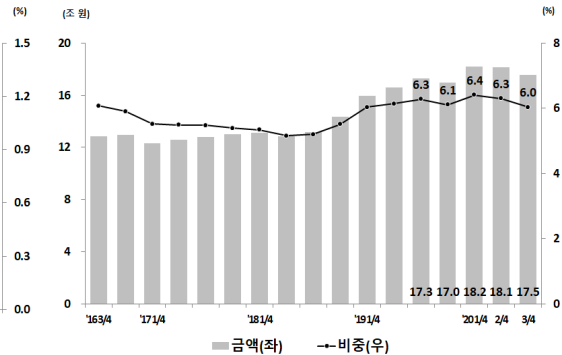
○ 기타부채는 17.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조 원 증가하였으나,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전년 동기 대비 0.3%p 축소됨

〈그림 59〉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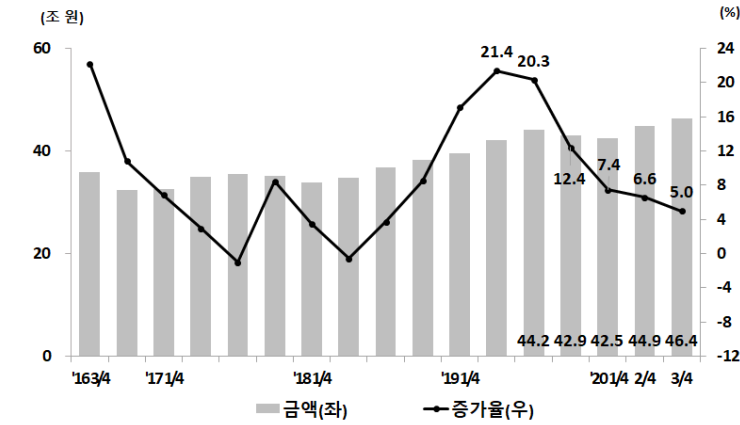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46.4조 원을 기록함

○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확대⁹⁾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8.2% 증가한 반면, 외국사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에 그침

8)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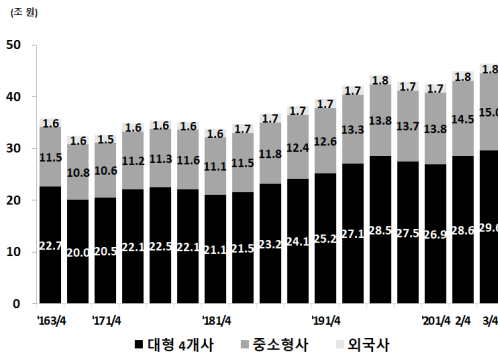
9)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항목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에 포함됨

〈그림 61〉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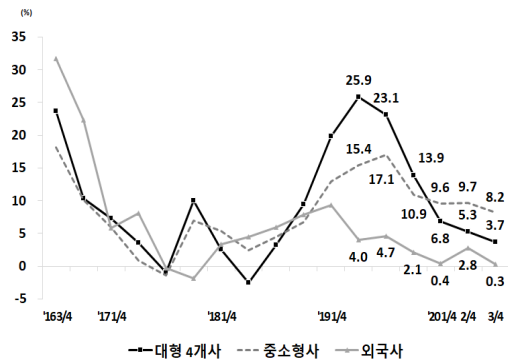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2〉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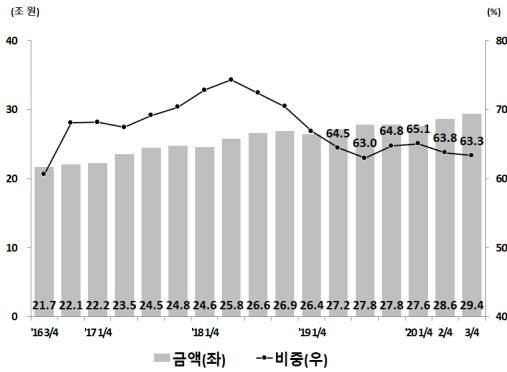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채권 평가이익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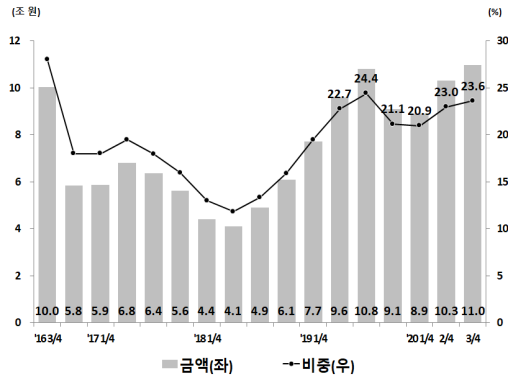
○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축소됨

〈그림 64〉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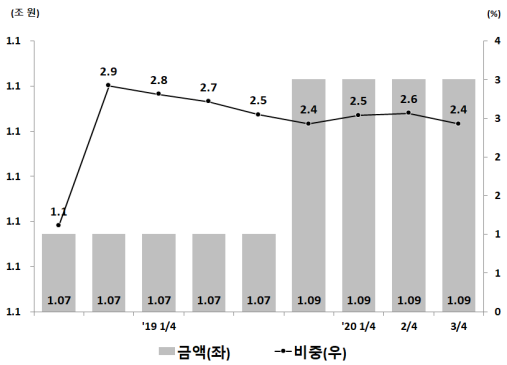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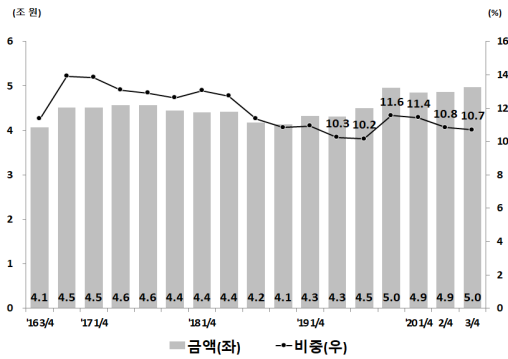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6〉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7〉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수익성

가. 당기순이익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손해 보험의 누적 당기순이익도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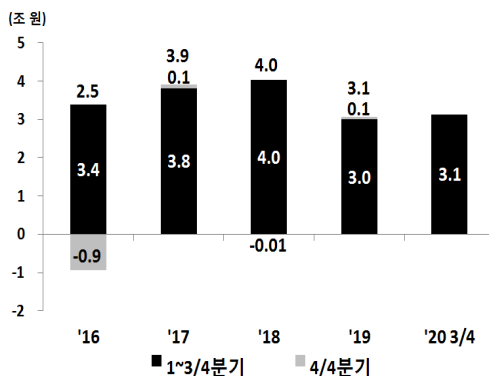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누적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3.1조 원 흑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축소로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손실이 저축성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축소됨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2.4조 원 흑자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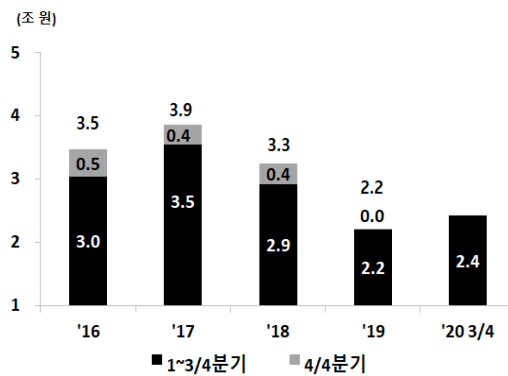
- 이자수익 감소에 따라 투자영업이익이 소폭 축소되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손실도 축소됨

〈그림 68〉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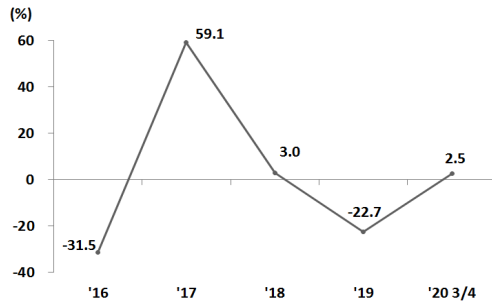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9〉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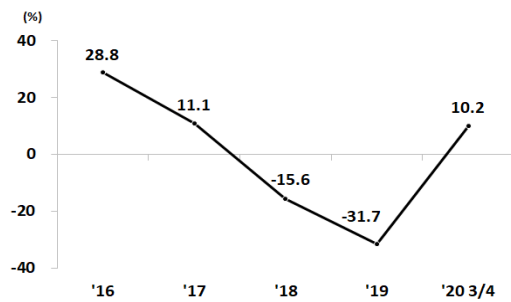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0〉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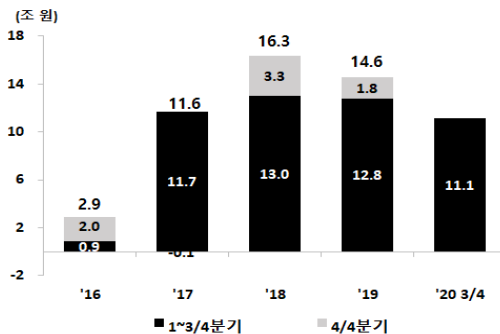
〈그림 71〉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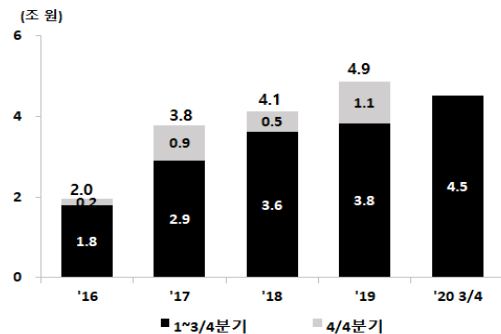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은행산업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한 11.1조 원을, 증권산업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한 4.5조 원을 나타냄

〈그림 72〉 은행 당기순이익



주: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3〉 증권 당기순이익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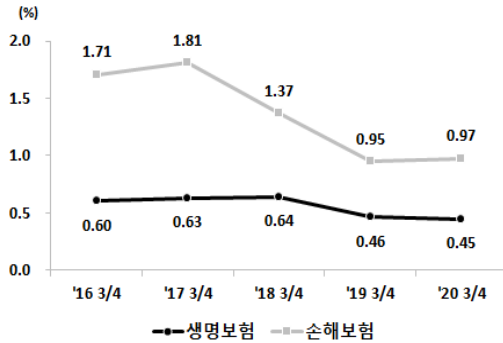
나. ROA, ROE

■ 생명보험산업 ROA와 ROE는 자산 및 자기자본 증가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손해보험산업의 경우 ROA는 당기순이익 증가로 상승하였으나 ROE는 자기자본 증가로 하락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ROA는 0.45%로 전년 동기 대비 0.01%p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의 ROA는 0.97%로 전년 동기 대비 0.02%p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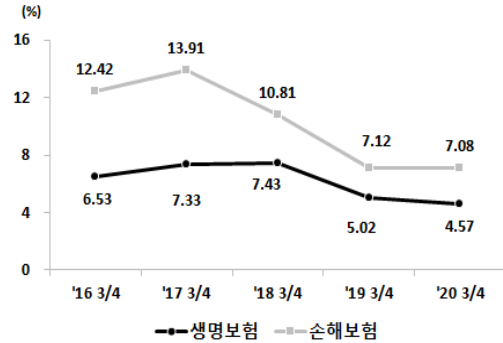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45%p 하락한 4.57%를,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04%p 하락한 7.08%를 나타냄

〈그림 74〉 보험산업 ROA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보험산업 R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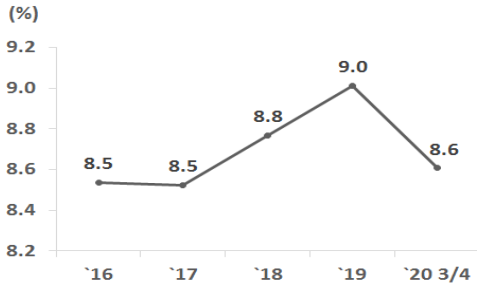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보험영업이익의 관련 지표

1) 생명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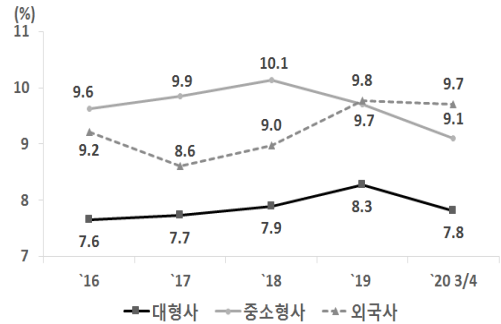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은 2019년 말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업비율 및 보험금 지급률은 2019년 말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해지율은 효력상실 및 해약 감소로 2019년 말 대비 0.4%p 하락한 8.6%를 기록하였으며, 대형사의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여 2020년 3/4분기 사업비율은 2019년 말 대비 0.9%p 상승한 14.0%로 나타남
 - 2020년 3/4분기 보험금 지급률은 83.7%로 나타났으며, 중소형사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76〉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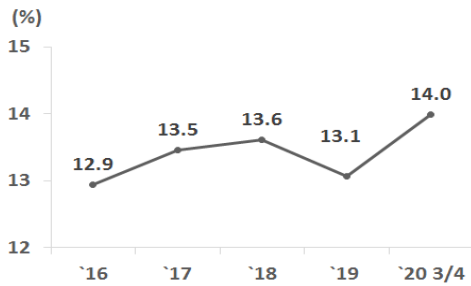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2020년 3/4분기는 연율화 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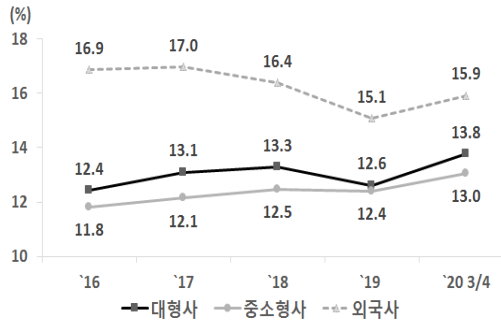
주: 1)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액)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
 2) 2020년 3/4분기는 연율화 한 수치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8〉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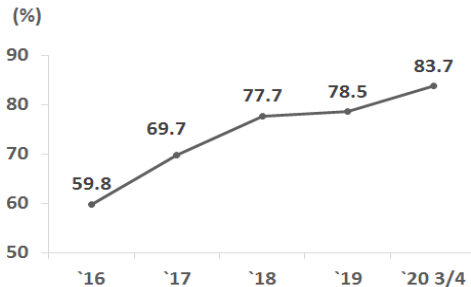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9〉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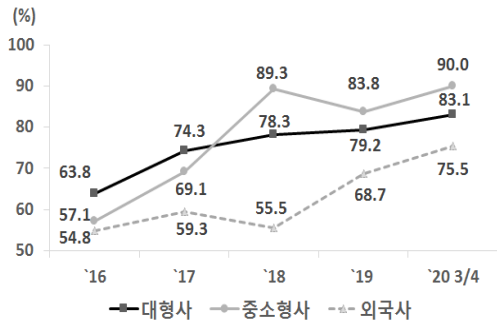
주: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0〉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주: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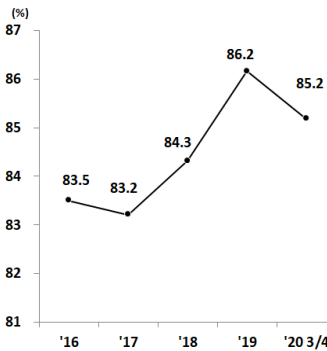


주: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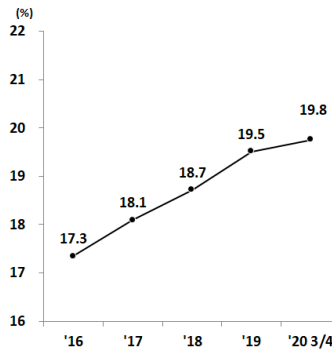
2) 손해보험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누적 합산비율은 사업비율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하락으로 전년 말 대비 0.8%p 개선됨
- 손해보험산업 손해율은 코로나19 반사이익에 따른 자동차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하락으로 전년 말 대비 1.0%p 하락함
- 사업비율은 운전자보험 판매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말 대비 0.3%p 상승한 19.8%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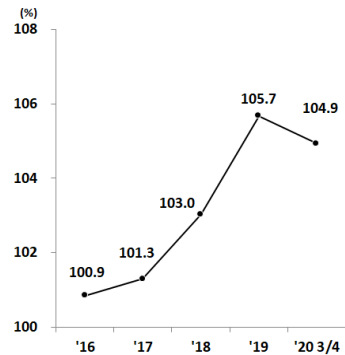
〈그림 82〉 손해보험 손해율



〈그림 83〉 손해보험 사업비율



〈그림 84〉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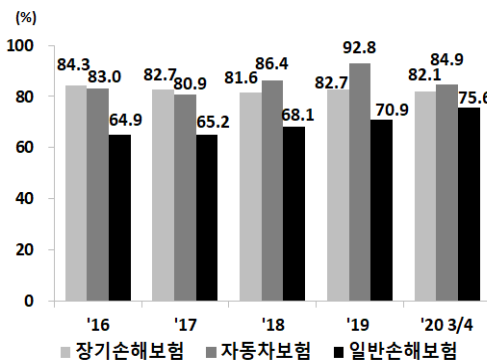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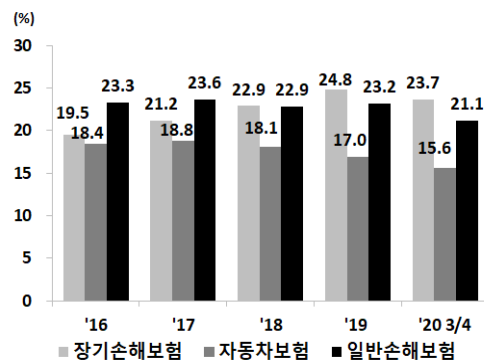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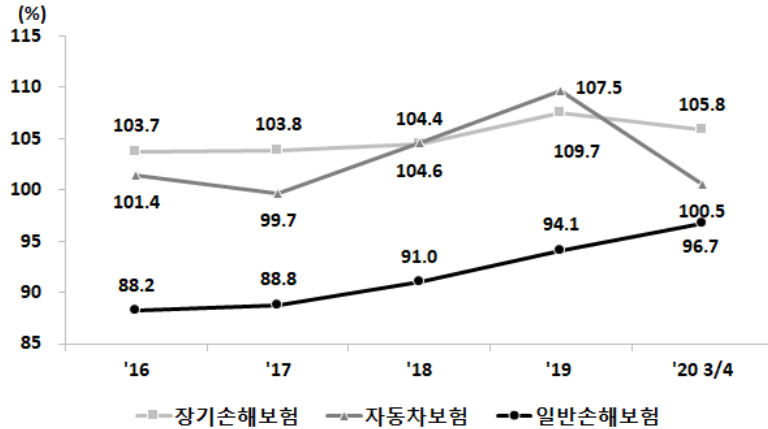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6〉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7〉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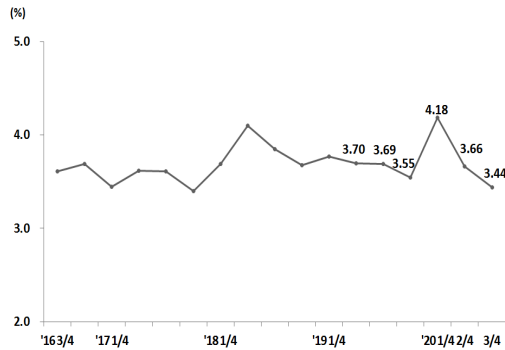
라.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

1) 운용자산이익률

■ 2020년 3/4분기 보험산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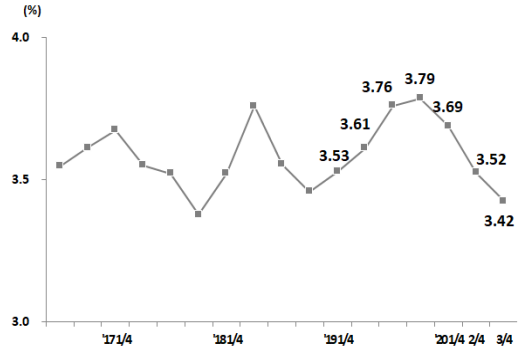
-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5%p 하락한 3.44%를 나타냄
-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또한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4%p 하락한 3.42%를 기록함

〈그림 88〉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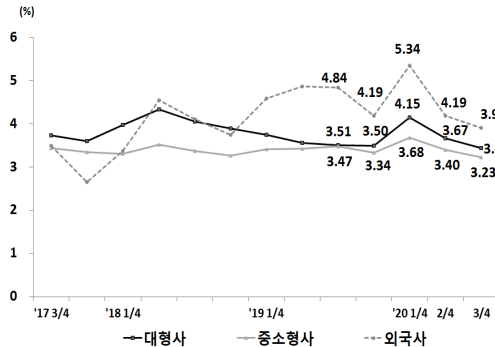
〈그림 89〉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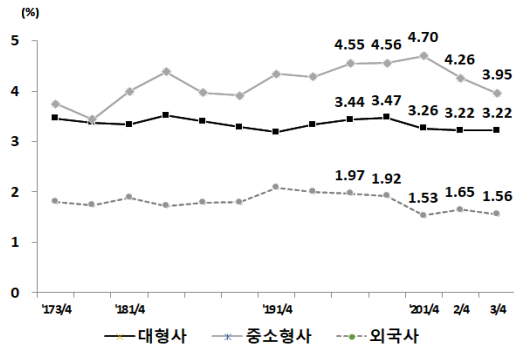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운용자산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년 동기에 비해 하락함

〈그림 9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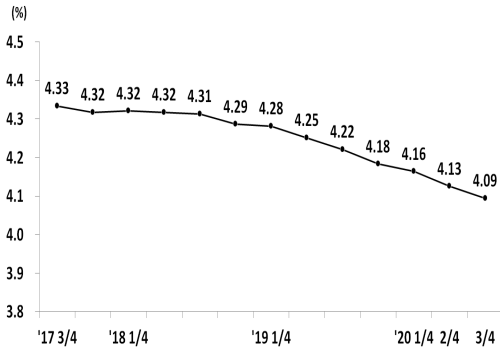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 생명보험산업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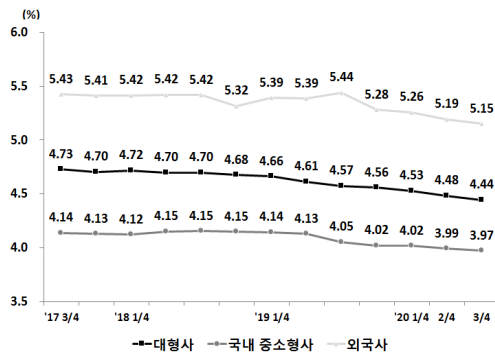
- 시장금리 하락으로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4.09%까지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3.44%보다 높은 수준임

- 회사 그룹별로 보면 모든 그룹에서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국사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적립금 평균 금리가 높은 편임

〈그림 92〉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그림 9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 / 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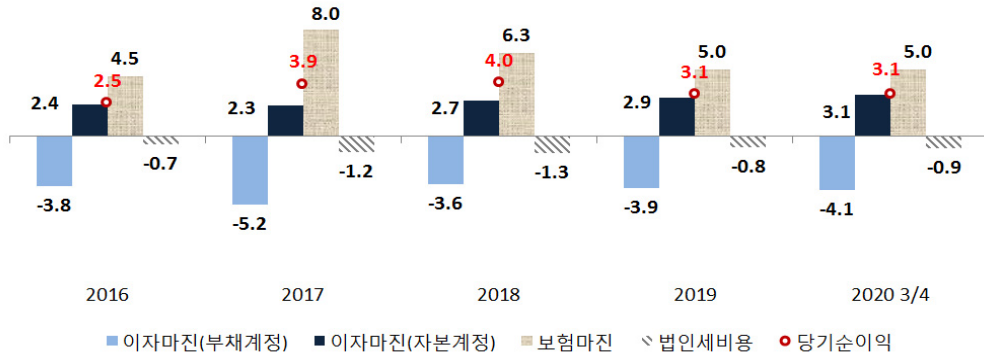
마. 이익구성

1)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이자마진과 보험마진은 각각 -1.0조 원, 5.0조 원이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은 3.1조 원 흑자를 나타냄

- 부채계정 이자마진은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이 모두 하락하면서 -4.1조 원을 나타냈으며, 자본계정 이자마진은 매도가능평가이익 확대에 따른 자본 증가로 3.1조 원을 기록함
- 보험마진은 수입보험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5.0조 원을 나타냄

〈그림 9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주: 1) 이자마진(부채계정) =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2) 이자마진(자본계정) = 자본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3) 보험마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마진(부채계정) - 이자마진(자본계정)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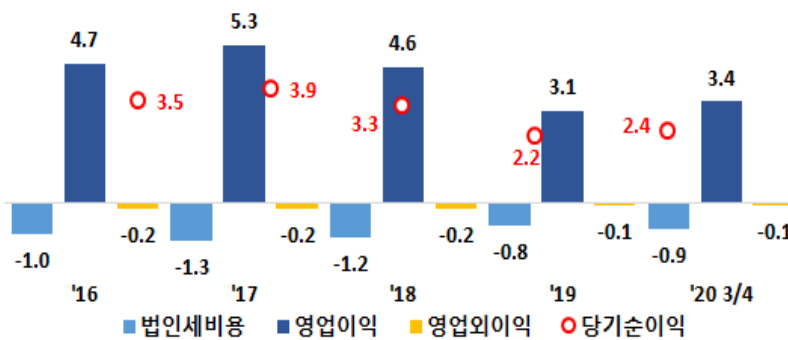
2) 손해보험

가) 당기순이익 구성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 손해를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으로 2.4조 원 흑자를 기록함
- 영업이익은 3.4조 원 흑자, 영업외이익은 0.1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9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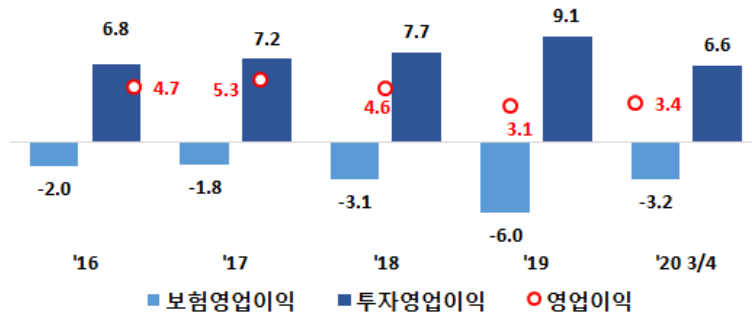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영업이익 구성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투자영업이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이익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어 흑자를 기록함
- 2020년 3/4분기 보험영업에서는 3.2조 원 적자를, 투자영업에서는 6.6조 원 흑자를 기록함
-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투자여건 악화에 따른 대체투자 부실화 우려 등의 영향¹⁰⁾으로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감소함

〈그림 96〉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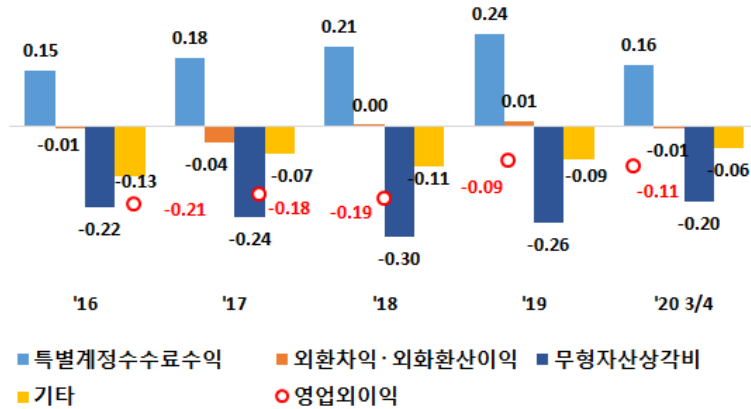
다) 영업외이익 구성

- 손해보험산업 영업외이익은 0.11조 원 손실을 나타냈으며, 전년 동기 대비(-0.05조 원) 적자폭이 확대됨
- 영업외이익은 특별계정수수료수익의 감소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적자폭이 확대됨

10)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1. 25), “‘20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치)”

〈그림 97〉 손해보험 영업외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주: 1) 외환차익은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외화자산 회수 및 외화부채 변제 시 발생한 환차익을 의미함

2)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에 따라 발생한 환산차익을 의미함

3) 무형자산상각비는 개발비, 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의 상각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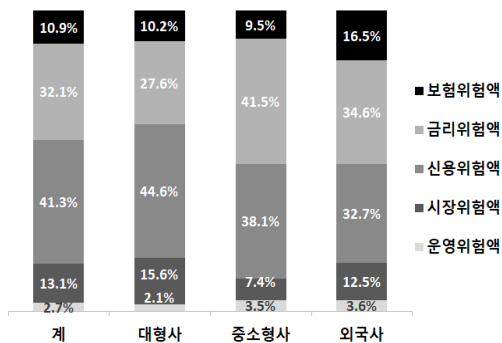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리스크¹¹⁾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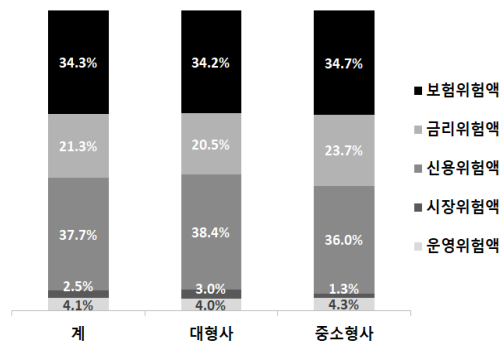
- 2020년 9월 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생명보험회사는 금리위험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위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는 신용위험 비중이 44.6%로 가장 높은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는 금리위험 비중이 각각 41.5%, 34.6%로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회사유형별 보유 위험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보험위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그림 9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그림 9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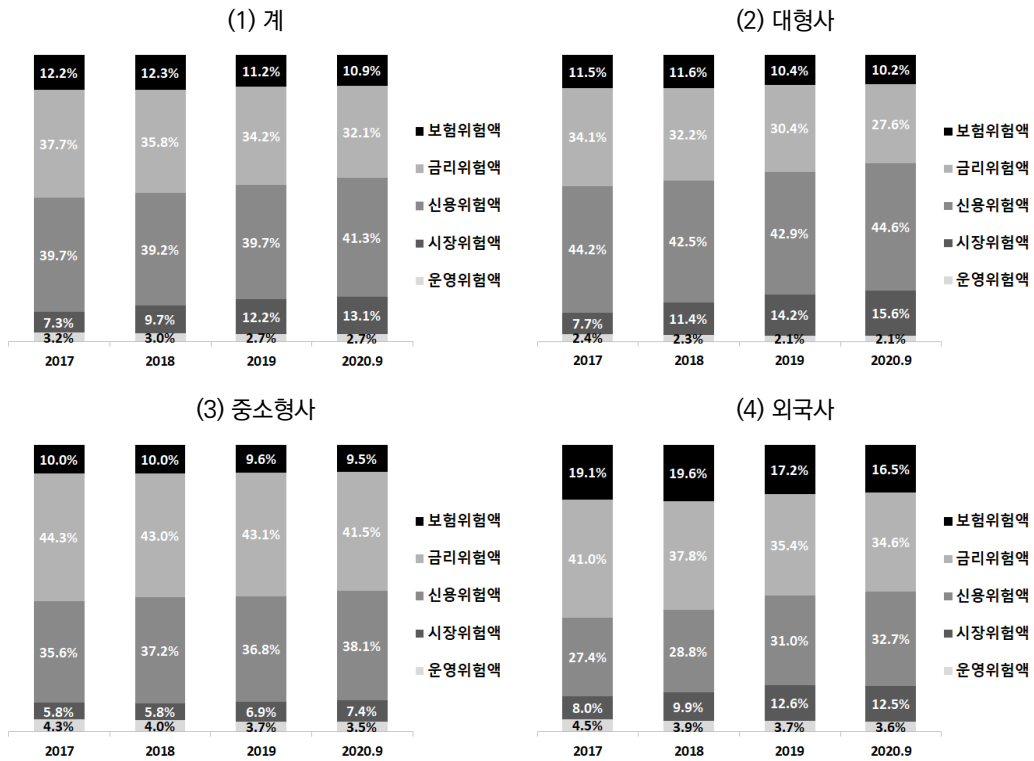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 2020년 9월 말 생명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말 대비 0.9%p, 1.6%p 증가한 반면, 금리위험과 보험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p, 0.3%p 감소함
- 대형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말 대비 2.8%p 크게 감소한 반면,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은 각각 1.7%p, 1.4%p 증가함

11) 본장은 반기마다 자세히 공시되는 위험관리 부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번 호에서는 2020년 9월 말 공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중소기업의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 대비 1.6%p 감소하였고,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3%p 증가함
- 한편, 외국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만 1.7%p 증가하였고, 다른 보유 위험 비중은 소폭 감소함

〈그림 10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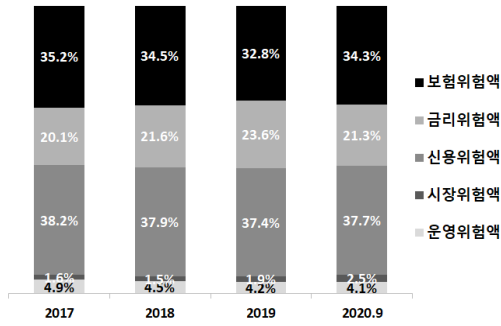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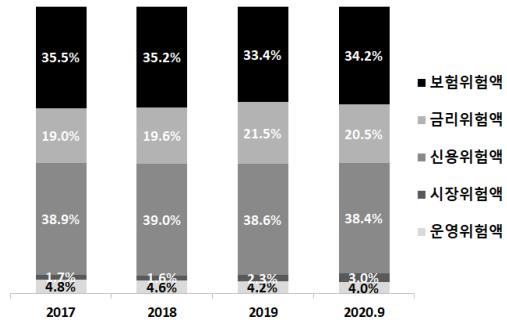
- 2020년 9월 말 손해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말 대비 2.3%p 감소하였으며, 신용위험의 경우 회사유형별로 다른 추세를 보임
- 손해보험회사는 금리위험과 운영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명보험회사에 비해 변동폭이 크지 않으며, 대형사보다는 중소기업의 변동폭이 다소 큰 편임
-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 말 대비 1.5%p 증가한 반면, 대형사의 경우 0.2%p 감소함

〈그림 101〉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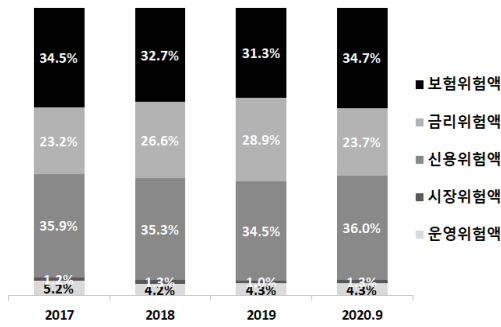
(1) 계



(2) 대형사



(3) 중소형사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4. 시장경쟁

가. 시장점유율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 2020년 3/4분기 그룹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된 반면,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 대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6.8%와 21.0%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p, 0.1%p 증가함

○ 중소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2.1%로 전년 동기 대비 0.9%p 감소함

■ 그룹별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0년 3/4분기에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외국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대형사는 일시납 생사혼합보험의 신규판매 확대가 두드러졌으며, 중소형사는 변액보험(변액유니버설)의 신규판매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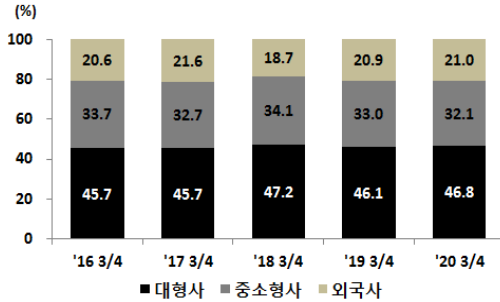
○ 외국사의 경우 생사혼합보험의 신규판매 감소로 인해 점유율이 축소됨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¹²⁾는 전년 동기 대비 10 하락한 975,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9 상승한 1,070임

○ 2020년 3/4분기 대형사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가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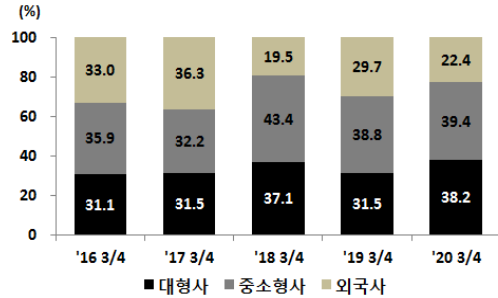
12) 허핀달 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그림 102〉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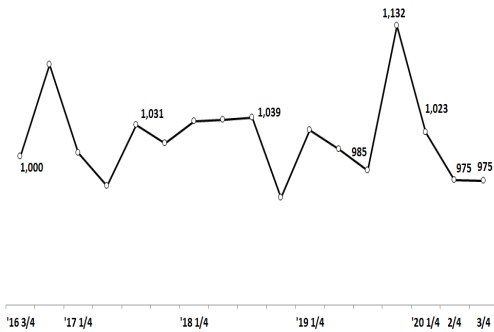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3〉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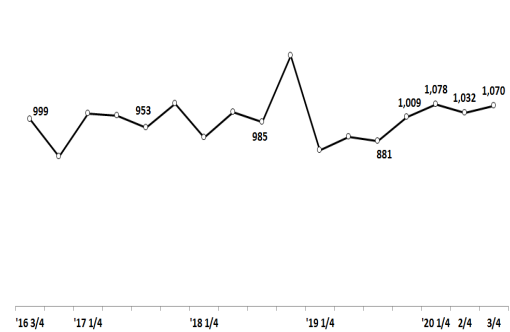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4〉 생명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5〉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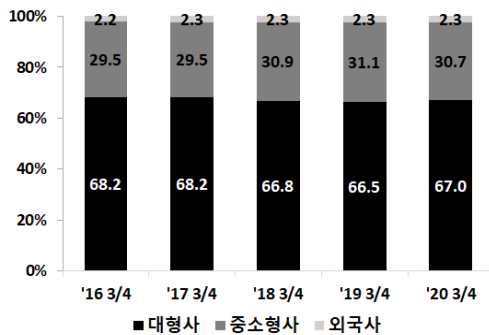
2)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되었고,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됨
-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19년 3/4분기 66.5%에서 2020년 3/4분기 67.0%로 확대되었고,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31.1%에서 30.7%로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0년 3/4분기 대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된 반면,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2019년 3/4분기 54.6%에서 2020년 3/4분기 47.6%로 축소됨
-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4.0%에서 53.4%로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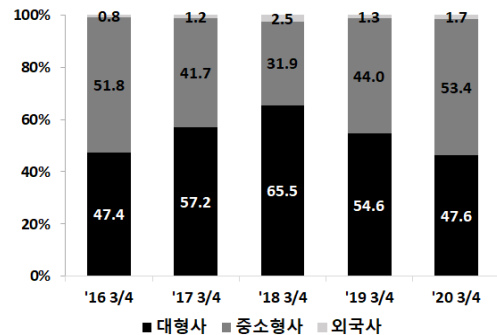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367로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408로 전년 동기 대비 166 하락함

〈그림 10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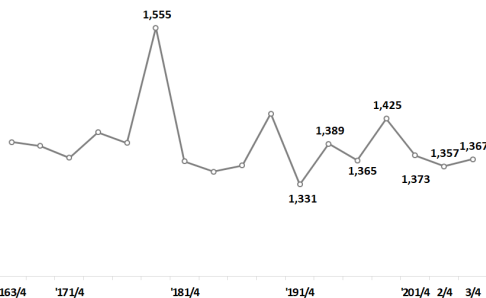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7〉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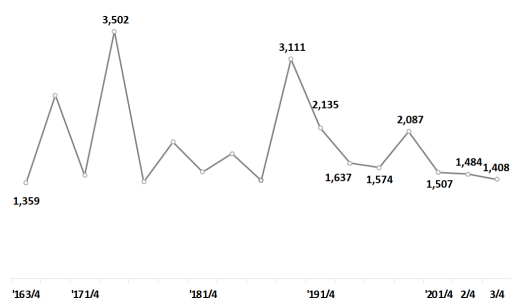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8〉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09〉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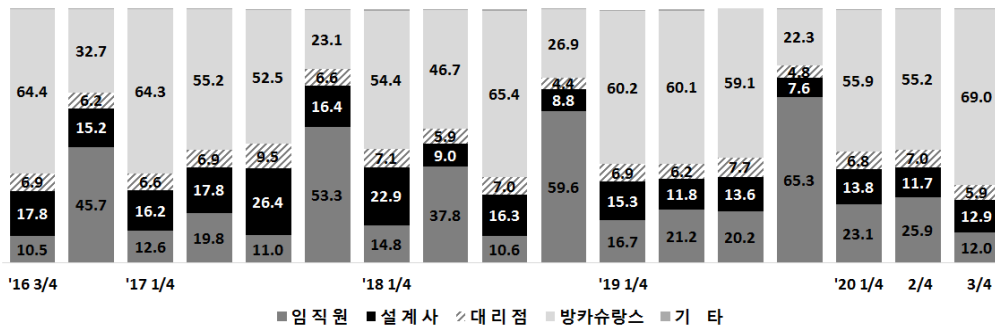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판매채널

1) 생명보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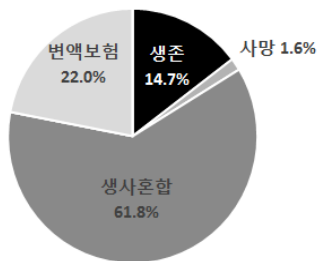
- 2020년 3/4분기 생명보험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됨
-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9.9%p 확대된 69.0%를 나타냄
- 설계사 채널과 임직원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12.9%와 12.0%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p, 8.2%p 감소함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채널의 판매 강화와 방카슈랑스를 통한 일시납 저축보험 증가의 영향임¹³⁾

〈그림 110〉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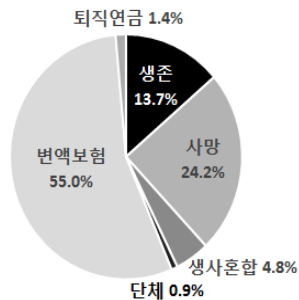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1〉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2020년 3/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2〉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2020년 3/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3)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 실적은 임직원 채널 실적에 포함되며, 대리점 채널의 경우도 비대면 채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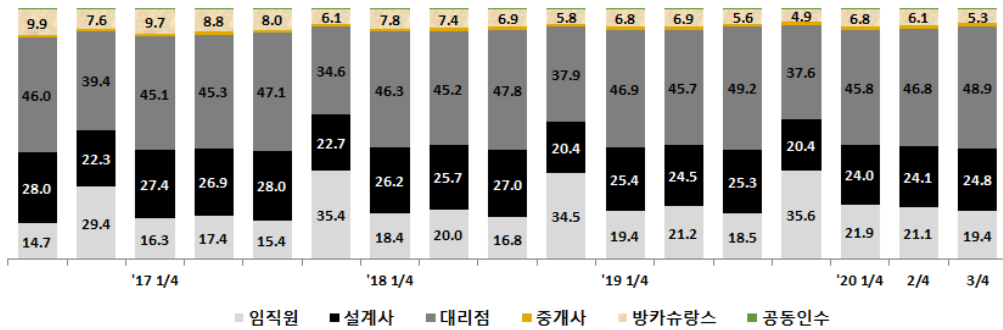
2) 손해보험 판매채널

■ 2020년 3/4분기 손해보험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임직원 채널의 비중이 소폭 증가함

- 임직원 채널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9%p 확대된 19.4%를 나타냄
- 대리점 채널, 설계사, 방카슈랑스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48.9%, 24.8%, 5.3%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3%p, 0.5%p, 0.3%p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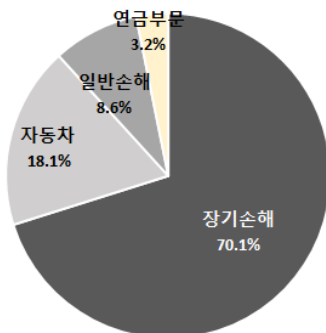
〈그림 113〉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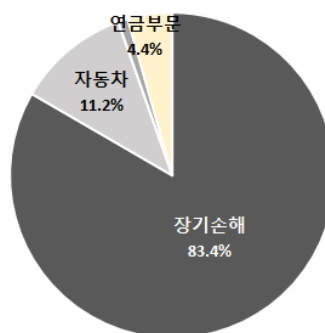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4〉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2020년 3/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5〉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2020년 3/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헤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운아·한성원 2020.1
-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4
- 2020-3 의료배상책임의 현황과 과제: 보상체계 중심으로 / 정성희·황현아·홍민지 2020.6
- 2020-4 일본 생명보험설계사의 지위와 조직운영 / 정봉은·이창성 2020.8
- 2020-5 예금보험 및 정리제도 개선방안 / 황인창·김해식·이승준·김동겸·안소영 2020.9
- 2020-6 보험영업 생태계 건전화를 위한 법인보험대리점 혁신방안 / 정세창·김대환 2020.9
- 2020-7 보험회사 경영자에 대한 보상체계 연구 / 한상용·문혜정 2020.10
- 2020-8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양승현·박정희 2020.12
- 2020-9 주요국의 자동차보험제도: 배상책임법제 및 의무보험을 중심으로 / 황현아·손민숙 2020.12
- 2020-10 사회적 신뢰와 보험 / 성영애·김민정 2020.12
- 2020-11 자동차 경미사고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해외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전용식·양승현·김유미 2020.12
- 2020-12 2021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20.12
- 2020-13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기초한 공·사 간 역할분담 방안 / 김용하 2020.12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이경희·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이창우·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랑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억·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랑 2015.11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2011-4 보험회사의 창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익·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종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준·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2020-3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정성희·이아름 2020.6
 2020-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해외진출과 시사점 / 이상우 2020.6
 2020-5 보험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 강성호·정인영 2020.7
 2020-6 잔존계약 거래와 시사점 / 김석영·이소양 2020.8
 2020-7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모집 행위 판단기준 / 양승현 2020.9
 2020-8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9
 2020-9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상화를 위한 과제: 상품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정성희·문혜정 2020.12
 2020-10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초고령사회 대응 사례 / 이상우 2020.12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실태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제 13호 202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1.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20 / KIRI, 2020.8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제3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20/ KIRI, 2020.9
제3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20/ KIRI, 2020.12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점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점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202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2020-2 2020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20.6
 2020-3 포스트 코로나 전망과 과제: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20.7
 2020-4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 / 조용운 2020.8
 2020-5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 - 재무건전성 / 김해식·노건엽·황인창 2020.9
 2020-6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 - 사회안전망 / 정성희·송운아·강성호·기승도·장윤미 2020.9
 2020-7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V) - 보험분쟁과 법제 / 황현아·손민숙 2020.9
 2020-8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III) - 소비자 중심 경영 / 변혜원·김석영·손재희·정인영 2020.10
 2020-9 코로나19와 변액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유미 2020.11
 2020-10 코로나19와 개인 생명보험시장 동향 / 김세중·김혜란 2020.11
 2020-11 일본 생명보험회사 파산 사례 / 윤성훈 2020.11
 2020-12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 (V) - 상품 및 채널 / 김동겸·김석영·정인영 2020.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해외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2020년 겨울호 (통권 96호)

발행일	2021년 2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9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